



# 선농 문화포럼

Sunnong Culture Forum

January, 2016 vol.14  
[www.sunnongforum.org](http://www.sunnongforum.org)

#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합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력 6년 연속  
세계 1위의 철강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끝없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날의 업적과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POSCO the Great 를 향해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posco**

# 선농문화포럼

## Sunnong Culture Forum

Sunnong Culture Forum  
January, 2016

vol.14

### CONTENTS

신년사	04	성기학이사장
강좌안내	05	제11기 인문·교양강좌수강생 모집
선농컬럼 I	06	옛그림으로 본 선비의 됴됨이와 풍류
선농포커스 I	10	선농문화포럼 총회 이모저모
선농포커스 II	15	제10기 강좌사진
문화탐방 I	18	대영박물관展(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2016. 3. 20)
시가 있는 풍경	20	인생사계(전략희 단국대 명예교수)
화제의 인물	22	김경임 前튀니지 대사 인터뷰
스터디투어	26	울릉도, 독도/나오시마 스터디투어 참가자모집
문화탐방 II	32	알레산드로 멘디니展(DDP전시관 - 2016. 2. 28)
커버스토리	34	사진작가 박중하
강의노트 I	36	스페인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서 유럽을 만나다
강의노트 II	38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이해
강의노트 III	40	Aging Gracefully with Music
강의노트 IV	42	기쁨과 절망, 돈의 인문학
강의노트 V	44	어깨 통증이라는 거인과의 싸움
공연·전시소개	47	공연·전시 소개
선농소식	48	선농문화포럼 이사회 개최 등



Cover Story  
표지  
박중하 Jukerman A. Bahk



발행인 \ 이사장 성기학 \ 편집인 임혜진 \ 어시스턴트 정수민  
주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 43 (신당 366-340), 사대부고동창회관 1층 (우) 04600  
TEL 02-2233-7871 \ FAX 02-2233-7851 \ 홈페이지 www.sunnongforum.org  
발행일 2016년 1월15일(통권14호) \ 디자인 UKO DESIGN 02. 307. 5501  
선농잡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선농문화포럼에 있습니다. 선농문화포럼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허가없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이런 새해가 됐으면...



2016년 丙申年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잔나비떠는 총명하고 재주가 많다고 하며,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류로 국보 제270호인 청자연적 등  
각종 도자기와 민화에서는 숭고한 모성애를 가진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농문화포럼은 지난해 9월 21일 대학로 TOM극장에서 창립 5주년 총회를 갖고  
전·현직 문화계 인사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17명의 이사진을 선출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4년간 자신들의 문화적 소양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식과 문화의 나눔을 전파함으로써 사회공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사)선농문화포럼이 출범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선농 인문·교양강좌>는  
2012년부터 서울시 평생교육강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중구 우수학습 프로그램에  
선정돼 2015년 제10기 강좌에 이르기까지 누적수강생 5,532명이 강의 수강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청소년을 위해 4년째 한국어와 영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한중 FTA가 발효되었는데 이는 유럽연합 EU와 미국 FTA에 이어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됩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문화국가로의 도약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선농문화포럼은 시민들의 정신문화 함양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선농 인문·교양강좌에 참여해주신 교수 및 강사님들과  
기부금, 이사회비와 연회비 납부로 선농문화포럼의 사회공헌사업에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선시대 정신적 기반이었던 道德書 '삼강행실도'를 되새기며 새해 인사를 마칩니다.

모든 계층의 차별없이 (使無賢愚貴賤孩童婦女)  
즐거보고 이야기를 익히고 (皆有以樂觀而習聞)  
그림을 보고 그 모습을 생각하며 (披玩其圖 以想形容)  
시를 읊어 감정과 성품을 본받는다. (諷詠其詩 以體情性)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권채(權采, 1399-1438)의 서문 중에서

사단법인 선농문화포럼 이사장 **성기영**

# 선농문화포럼 제11기 인문·교양강좌 수강생 모집



<선농 인문·교양 강좌>는 2011년부터 누적교육생 5,532명이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강좌는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무료강좌로 운영하오니,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선농문화포럼 사무국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6년 3월 ~ 5월 목요일강좌 안내

구분	일정	과정명	담당교수	강의시간	비고
인문 교양 과정	3/3 (목)	옛 그림으로 본 선비의 됴됨이와 풍류	손철주 미술평론가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무료
	3/10 (목)	Google Earth로 본 세상	이한방 지리학 박사		
	3/17 (목)	예술의 섬, 나오시마	이희숙 서울교대 명예교수		
	3/24 (목)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이해	이서항 (재)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3/31 (목)	음악치료 'Aging gracefully with music'	정은주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4/7 (목)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유럽을 만나다.	김효선 여행작가		
	4/14 (목)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김경임 前튀니지 대사		
	4/21 (목)	기쁨과 절망, 돈의 인문학	김진혁 미래성공전략 연구소장		
	4/28 (목)	웃음과 함께하는 행복여행	김현남 성가소비녀회 수녀, 1급 웃음치료사		
	5/12 (목)	어깨통증, 오십견의 진실	이상훈 CM총무병원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5/19 (목)	K-movie를 통한 한류전파	김현숙 前TV저널 편집장		
	5/26 (목)	몸 깨침, 나를 힐링하기	황정현 몸살림대표, 이학박사		

※ 교육과정 운영안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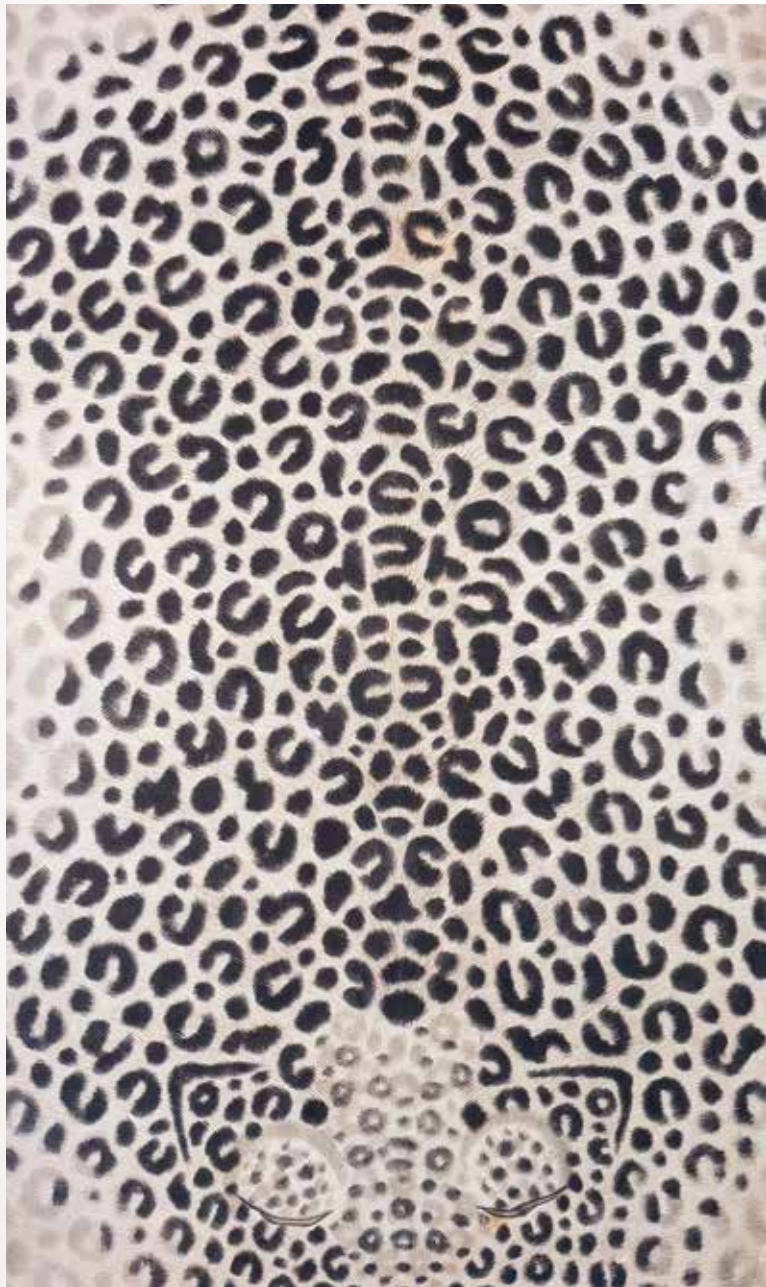
**강 연 장** 중구 다산로 43 사대부고동창회관 3층 선농홀 (6호선 버티고개역 1번출구)  
**수강신청** 사단법인 선농문화포럼 www.sunnongforum.org  
서울시 중구 다산로 43 사대부고동창회관 1층 (우)04600  
Tel 02-2233-7871 / Fax 02-2233-7851  
e-Mail sunforum@daum.net

# 옛 그림으로 본 선비의 됴됨이와 풍류

손철주  
미술평론가

옛 그림은 장르에 따라 그리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옛 선비들의 됴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장르는 초상화이겠지요. 초상화를 그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꼴을 그려 얼을 살리기'랍니다. 꼴은 외모, 얼은 정신입니다. 외모에서 정신을 찾는 것이 초상화의 핵심이지요. 외모에서 어떻게 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키워드는 '성어중(誠於中) 형어외(形於外)'입니다. 곧 '마음에 성의가 있으면 겉으로 모양이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겉모양은 마음 씀씀이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초상'이란 말의 뜻을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생긴 것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닮음'이란 얼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까지 아우르는 말이겠지요. 옛날 초상화는 꼴과 얼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 모델이 되는 그 사람의 생김새와 마음씨를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선비들의 풍류는 어떠한을까요. 예부터 이런 말이 있었 습니다. '서울 양반은 입은 옷 사치, 호남 양반은 먹는 음식 사치, 영남 양반은 사는 기와집 사치.' 잘 먹고 잘 사는 양반이라 해도 올바른 양반은 풍류정신을 알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했을 테지요. '풍류'는 바람 風, 흐를 流를 씁니다. 그만큼 풍류의 의미는 변덕스럽고 다채롭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맛과 운치를 즐기는 어려운 삶의 태도'로 풍류의 의미는 대체로 굳어집니다. 지나쳐서 방탕한 경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옛 그림에 등장하는 선비들의 풍류는 시서화 정신에 바탕을 둔 웅숭깊은 인문적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들의 풍류세계를 그림으로 만나보는 일은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겠지요.



전(傳)김홍도, 표피도(豹皮圖)

단원 김홍도(金弘道)는 표범의 가죽을 그린 아주 독특한 <표피도(豹皮圖)>를 남겼는데요. 살아 있는 표범이 아니고 왜 하필 표범의 껍질을 그렸을까요. 껍질을 그려 놓으니까, 표범의 무늬가 더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옛날 《주역(周易)》에 보면, '혁'이라는 괘를 설명하는 괘사가 나와 있는데요. 가죽을 혁(革)이라고 하죠? 피혁은 겹겹질이라는 뜻입니다. 주역에 혁괘(革卦)를 설명하는 대목에 '대인호변(大人虎變) 군자표변(君子豹變) 소인혁면(小人革面)'이라고 했습니다. 대인은 자기가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가을철에 호랑이가 털갈이 하듯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군자는 어떻게 바뀌느냐. 표범이 털갈이 하듯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인은 혁면이라, 낫짝만 바꾼다고 했지요. 여기서 표변(豹變)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표변이 뭐라고 나오니까? 그냥 약속이나 신의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순식간에 바꾸는 것을 보고 저사람 표변했다고 하죠? 원래 그 뜻은 표범이 가을날 털갈이를 하듯이 변한다는 얘기로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표변이 나쁜 의미로 전용이 된 것이죠. 군자는 표범이 털갈이 하듯이 변해야 한다. 그만큼 자기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손권(孫權)의 참모인 여몽(呂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몽이 머리는 대단히 좋은데 노력을 안 했다고 해요. 군자가 되어서 책 읽기를 게을리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권이 하루는 여몽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재주도 좋고 말이지, 머리도 상당

히 좋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노력을 게을리 하는가?" 군주가 한마디 하니 까, 여몽이 큰일 났다 싶어서 그때부터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느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사별삼일 괘목상대(士別三日 刮目相對)'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비는 사흘만 헤어졌다가 만나면,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상대로 바뀌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자의 개혁이 그런 겁니다. 사흘 만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갱신시키는 놀라운 개혁! 이것이 바로 표변입니다. 표변! 그러니까 단원의 이 그림은 아마도 사대부 집안에서 자기를 개혁하기 위해 목표를 정한 벼슬아치가 이런 그림을 부탁해서 걸어 놓고 자기 교훈으로 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미 그림도 있습니다. 매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비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미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고작 일주일 남짓입니다. 그 기간 신나게 울다가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목숨이 짧지요. 다만 매미는 애벌레 시절이 길니다. 성충이 되기까지 땅 속에서 7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매미는 나무로 올라가기까지 오랜 기다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비나 사대부들이 지녀야 할 덕목과 닮았습니다. 옛 문인이 말했어요. 매미는 오덕(五德)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가 '문(文)'입니다. 매미의 이마를 보면 더듬이가 있지요? 그것을 보고 갓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 사람들은 매미도 문자 속에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매미의 첫 번째 덕목이 '문'입니다. 두 번째는 '청(淸)'입니다. 매미는 무엇을 먹죠? 깨끗한 나무 수액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덕은 '맑을 청'이 되는 겁니다.

김인관, 매미



세 번째는 '염(廉)'입니다. 매미는 남이 지어놓은 곡식을 축내지 않죠? 쌀, 보리에 입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검(儉)'입니다. 매미는 자기가 살 집을 따로 짓지 않습니다. 매미는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 것이죠.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검'입니다. 마지막 덕이 무엇이나? '신(信)'입니다. 매미는 여름 내내 울다가 철이 바뀌면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죠? 그래서 신의가 있습니다. 문(文), 청(淸), 염(廉), 검(儉), 신(信). 이 다섯 가지가 매미의 오덕입니다. 매미의 오덕은 선비나 사대부, 벼슬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매미를 보면서 선비와 군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벼슬아치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오사모(烏紗帽)라고 부르는데요. 오사모를 보면 날개처럼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이게 매미가 날개를 펼친 겁니다. 임금의 모자는 익선관(翼蟬冠)이라고도 하는데, 날개 익(翼), 매미 선(蟬)자가 들어있죠. 그 매미 날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매미가 날개를 짝 모아 비상하는 그런 기상을 보여 주는 겁니다. 벼슬하는 이들의 관모에 매미의 날개가 붙은 것도 다섯 가지 덕과 연관됩니다.

양반이 벼슬을 마다하고 내려와서 은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알아봅시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림을 남겼습니다. 단원의 <포의풍류도>는 선비 집안의 인테리어를 엿보게 합니다. 먼저 그림 속의 저 선비가 맨 발인 것이 눈에 띄니다. 그만큼 선비의 정신이 얽매임 없는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겠지요. 선비가 들고 있는 것이 당비파(唐琵琶)입니다. 시서(詩書) 뿐만 아니라 음악을 즐길 줄 알아야 참다운 군자가 된다고 일찍이 공자가 말씀하셨지요. 왼쪽에 보면 천으로 싸 놓은 문치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서책입니다. 바닥에 보면 파초(芭蕉)가 있습니다. 선비 집안에 파초가 있는 것은 그저 관상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독학하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당나라 때 중국의 회소(懷素)라는 아주 유명한 서예가가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붓글씨를 연습할 종이를 살 수 없어 넓은 파초 잎에 먹을 갈아 붓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쓰고 나서는 물에 한번 설렁설렁 흔들면 먹이 달아나니까 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초는 독학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김홍도,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



벼슬아치와 선비,  
그리고 민초들이 사는 세상은  
비록 평등사회는 아니라 해도  
더불어 사는 관용이 있기에  
조선사회도 살 만한 곳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무엇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 했던 선비들,  
또 세속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아기자기한 풍속,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옛 그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끊이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 냅니다.

그 옆에 붓이 있고 벼루가 있습니다. 문인들의 네 가지 벗을 문방사우(文房四友)라고 하지요. 지, 필, 묵, 연입니다. 그 앞에 선비 발치에 놓인 것이 '생황(笙簧)'이라는 악기입니다. 입에 대고 불면 구슬픈 소리가 나는 관악기죠, 칼도 있습니다. 칼이 품고 있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칼'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자신의 게으른 마음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깨어 있는 정신이나 진실, 이런 것이 칼이 내포한 상징입니다. 그 때문에 문인도 칼을 하나씩 집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보면 표주박이 있습니다. 표주박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마 술이 들었겠죠. 비파를 뜯고 생황을 불고 연주하다가 또 흥이 나면 술을 마시고 저기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또 시 한 수를 적고 그랬겠죠. 단원의 그림에 들어 있는 글을 보면 이 선비의 의사를 알 수 있습니다. 紙窓土壁(지창토벽) 終身布衣(종신포의) 嘯詠其中(소영기중). 종이로 창을 만들고 흙으로 벽을 바른 곳에서 평생 삼베옷 입고 살지만 그 속에서 노래하고 읊조리리라. '포의'를 입고 산다는 말은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복을 입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벼슬을 안 해도 좋다, 종이로 만든 창 그리고 흙으로 지은 벽, 그 속에서 노래하고 시를 지으며 살고 싶다. 참 소박한 꿈입니다.

### 책 소개 <그림 보는 만큼 보인다>

미술평론가 손철주의 <그림 보는 만큼 보인다> (2011, 오픈하우스)는 미술과 인간의 삶을 절절하게 다루는 저자 고유의 미문美文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읽을 때 마다 새로운 느낌을 전해주는 스테디셀러다.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저자의 해박함은 극적(劇)적인 문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림뿐 아니라 그림을 그린 작가의 성격까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생생하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 그림이라고 예외일까? 이 책은 그림에 관심은 많은데 보는 법을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술된 것이다. 저자는 그림은 즐겨야 할 대상이므로 편견과 독단으로 가득한 감상일지라도 아는 대로 자신 있게 이야기해보라고 권하면서 그와 가깝게 다가서도록 이끈다.



# 선농 문화포럼

## 총회 및 기념행사

2015. 9. 21



1

- 1. 총회를 진행하는 성기학 이사장(右)과 임혜진 부장(左)
- 2. 총회장을 가득 메운 회원
- 3.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는 성이사장(左)
- 4. 총회에 출석한 회원들



2



3



4



5



6

- 5. 앙상블포유의 멋진 축하공연
- 6. 브라보! 일어서서 환호하는 관람객



7



8

- 7. 관객에게 인사하는 나윤규 감독(左)과 공연팀
- 8. 환상의 하모니



9

- 9. 총회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회원들



1. 찰칵! 멋쟁이 회원들  
2. 모두 함께 스마일  
3. 총회에 참석한 사대부고 이기성 교장과 이재엽 교감  
4. 석찬을 즐기는 회원들



5. 앞줄 좌로부터 김필규, 이인호, 변주선, 음용기 이사  
뒷줄 좌로부터 김종규 감사, 김윤중 이사, 성기학 이사장,  
이희숙, 김명자, 김종량 이사 기념촬영  
6.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집으로..  
7. 김영길(右) 前한동대총장과 환담 중인 선농문화포럼 이사진  
8. 화기애애한 연회장

사진 / 연경흠, 조용식

# 소중한 꿈을 향해 35년을 걸어온 희망찬 발걸음!

아이코리아는 1981년 설립 이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공익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80 종

아이코리아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제작한 교구·교재의 종류

42,000 기관

아이코리아의 목적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수

350,089 세트

아이코리아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무상으로 보급한 교구·교재

2,300,000 명

아이코리아를 통해 직접 지원받은 개인의 수 (기관·단체 제외)

77,000,000,000 원

아이코리아의 다양한 목적사업을 진행하며 사용된 지원금액

## 대한민국의 희망 교육, 아이코리아가 만들어갑니다

### 주요사업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
  - 어린이전통문화교실, 어린이극놀이센터 운영
  - 청소년 당일재량활동 및 임원수련회 등
- 교원 및 성인을 위한 연수사업
  - 교사, 시설장, 장학사(관) 연수 및 워크숍
  - 교원직무연수 / 유아교육학술대회 등
  - 보육교사 양성과정
-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 유아교육관련 교구·교재 보급사업
- 평생교육사업
- 대외협력기관 위탁운영

### 다양한 공익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 학술연구 및 지원
- BEST BUDDIES KOREA
- 전국 회원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유아교육 학술대회 개최
- 한국안데르센상 작품공모전
- 영세 유아교육기관 교구·교재 지원
- 유아·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
- 국제교류활동 / TLS Program

### 운영기관 및 시설

- 교육연구개발원
- 이동발달교육연구원
- 새세대유치원
- 한국육영학교
- 정보센터 / 어린이도서관
- 송파·동작아이존 (서울시 위탁)
- 서울심리지원센터 (서울시 위탁)
- 벚들어린이집 (송파구 위탁)
- 시설운영 : 평생교육원, 교육관, 키즈센터, 숙소동 등
- 보육교사교육원
- 평생교육원



김병조 조선대 초빙교수(앞줄 우측에서 세번째)와 명심보감 강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수준 높은 강의로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도 깊은 주제를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속에 눈물과 교훈이 있는 강사님의 말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을 되새기며 현재의 삶과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건설적인 반성을 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주셔서 수업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수강했습니다.

- 제10기 <선농 인문·교양 강좌> 수강생 강의평가 중 -





1



2

1. 심영숙 수간호사의 '당뇨도 알고나면...'  
2. 함기수 강사(앞줄 가운데)와 단체사진



3



4

3. 재미있는 중국이야기였어요!  
4. 김기영 (주)영원무역 교문의 인간과 식물의 비밀



5



6

5. 조환복 前멕시코 대사의 중남미 이야기  
6. 이인호 KBS이사장(左)과 대화하는 이일희(中), 정극수(右) 수강생



7



8

7. 양생제조로 건강을 지켜볼까요?  
8. 웃음과 박수가 절로 나오는 강의시간



8

8. 웃음과 박수가 절로 나오는 강의시간



9



10

9. 통일한국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10. 최명상 前공군대학 총장(앞줄 가운데)과 단체사진



11



12

11. 중요한 포인트는 사진에!  
12. 열강중인 원영신 연세대 교수



13



14

13. 원영신 교수(앞줄 가운데)와 기념촬영  
14. 이인호 KBS이사장(앞줄 가운데)의 톨스토이 강연을 마치고



15



16

15. 귀에 쏙 들어오는 강의예요-  
16. 박종하 작가(앞줄 가운데)와 사진강의 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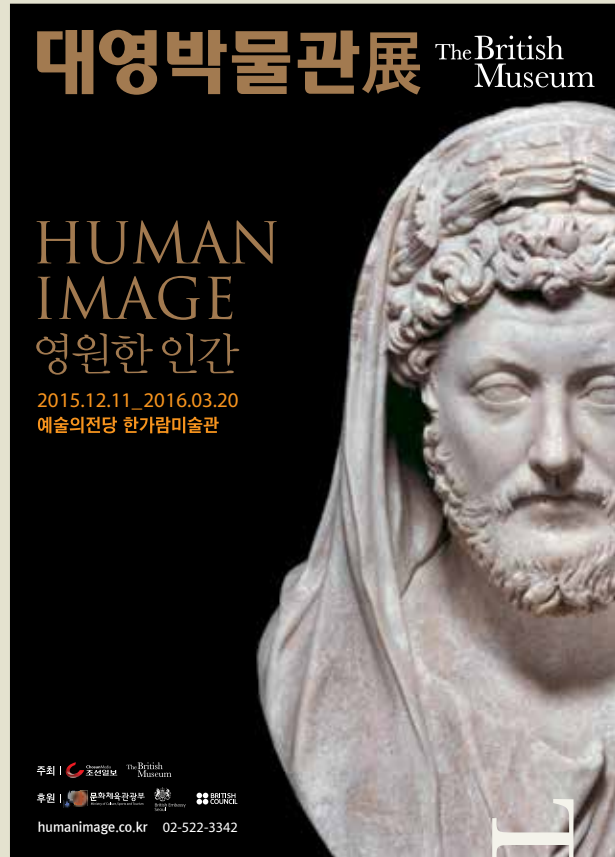
17. 최명상 총장(左부터 두번째) 강의를 마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 대영박물관 영원한 인간展 HUMAN IMAGE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의 소장품 176점을 선보이는 <대영박물관-영원한 인간(Human Image)展>이 3월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인류 역사상 영원불멸의 주제인 '인간'을 테마로 전시시대와 전 대륙을 아우르는 대영박물관 방대한 컬렉션의 핵심 축소판이다.

전시는 이상적인 미(美)의 형상, 인간을 닮은 신의 형상, 권력자의 형상 등 총 6개의 소주제로 구성되는데, 문화와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해 인류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장 오래된 유물인 8천 년 전 신석기 시대의 해골부터 대영박물관의 자랑인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유물은 물론 대영박물관의 현대 컬렉션인 20세기 거장들의 대표작까지 엄선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한국 관람객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이집트 유물 중에서는 미라관, 이시스 여신상, 아문-라 조각상 등 총 13점이 출품되었다. 세계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렘브란트, 뒤러, 마티스, 피카소의 미공개 드로잉 등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되었다.

인류가 수천 년 간 이룩해 놓은 세계 문명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정** 2016년 3월 30일(일)까지  
**장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자료제공** 조선일보사

The British  
Museum

**여인 그림이 있는 접시**  
파엔자 혹은 포를리  
이탈리아, 1524  
  
1색선  
Ideal beauty  
아름다움



**여인의 초상**  
사카라, 이집트  
로마시대, 100-120년  
라임우드 에 템페라와 납화  
37.4 × 17 cm  
  
2색선  
Expressing the person  
개인



**장례 마스크**  
니네베, 북부 이라크  
파르티아, 2세기  
금박 17 × 16 cm  
  
5색선  
The body transformed  
변신



**판(Pan)의 대리석상**  
마리우스 코스티우스 케르도  
이탈리아, 로마 인근 몬테 카놀로 출토  
기원전 45-25년  
대리석 115 × 44 cm  
  
1색선  
Ideal beauty  
아름다움



**하토르 여신의 부적**  
테베, 이집트  
제 18왕조, 기원전 1390-1325년  
동 14.7 × 4.83 cm  
  
3색선  
The body divine  
신



**노인의 무덤 부조 파편**  
아테네, 그리스  
기원전 340-320년  
대리석 40.8 × 32 cm  
  
2색선  
Expressing the person  
개인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이시스 여신의 좌상**  
사카라, 이집트  
후기왕조 시대, 기원전 600년 이후  
동, 금, 나무 23 × 6.1 cm  
  
6색선  
Relationships  
사랑

**성모 마리아와 아기예수**  
라파엘로 (이탈리아 1483-1520)  
1509-11년  
검정 분필과 목탄 70.7 × 53.3 cm  
  
6색선  
Relationships  
사랑



# 人生四季

인생사계

전락희(시인)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봄 같지 않은 봄, 잊지 않고 온 땅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 태어나  
이름은 바뀌고 말은 앓아갔다.  
찌든 가난에  
해방의 함성 뭉지도 모르고 칭얼거리다  
전쟁의 포화에서도 아이는 훌쩍 커버렸다.

태양은 뜨겁고 대지는 이글거린다.  
삶의 현장은 치열해서  
등골이 젖도록 뛰다가  
해맑은 영성의 향기로  
사랑을 만나  
둘은 하나가 되고 셋이 되었다.  
산넘고 강건너 과거를  
찾아 나섰다가 이슬 맺힌 눈으로 미소 짓는다.

기러기 먼 길 남으로 간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등은 활 같이 굽었다.  
긴 여로에서  
거뒤틀린 것들 그만하면  
축제의 마당에서 두둥실 두둥실 춤출만도한데  
못다한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먼먼 하늘만 본다.

눈 내리는 밤, 바람도 사납다.  
사지는 자유를 잃고  
기억은 가물거리려도  
이웃과 함께 숨쉬며  
남아버린 지금이 싫지가 않다.  
거울에 비친 저 모습  
정녕 사계의 끝자락이어도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  
언덕 위 소나무처럼 칼바람 견디며  
꽃피고 새지저귀는 봄 같은 봄을  
맞이하리라, 봄 같은 봄을 맞이하리라!

사진 구관서 前 EBS 사장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著者

# 김경임氏 인터뷰

약탈 문화재 환수 문제의 전문 외교관 출신  
오벨리스크, 몽유도원도에 이은 3부작 출간

2012년 10월 2일 대마도 중서부 해안의 외진 기사가 마을. 저녁 7시 무렵이 되자 적막한 바다를 마주한 이 작은 마을 숲속에도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이 때 세 명의 남자가 해안가의 한적한 도로변에 세워진 신사 도리이문 안으로 재빨리 숨어들었다.



출판기념회가 열린 목금토갤러리에서 인터뷰 중인 김경임(사진 좌측) 前 튀니지대사 / 사진 임혜진

문화재의 역사는  
빼앗고 빼앗기는  
역사입니다.

원주인의 손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 환수운동의  
기본입장입니다.

'사라진 관음보살 나타나다'라는 첫 챕터의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문화재 관련 도서라는 선입견이 여지없이 부서지는, 박진감 넘치는 도입이다. 고리타분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다. 이 책의 제목은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곰시출판사). 3년 전, 3인의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 서 고려불상, 신라 불상, 대장경 등 3점의 조선문화재를 훔쳐 팔아먹다 잡힌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자료의 정확한 제시와 저자의 명료한 인식의 태도에 문장이 주는 매력이 더해져 단숨에 읽힌다.

세 점의 문화재 중 신라 불상은 이미 일본에 돌려주었고, 대장경은 행방 불명. 현안이 되고 있는 나머지 한 점이 바로 부석사 관음상이다. 이 불상은 1330년 서산 마을의 평범한 주민 32명이 관세음불의 연민과 자비에 의해 그들이 처한 당대의 고통으로부터 구원 받기를 간절히 빌며, 서산 부석사에 봉안했다는 내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이 불상은 아름다운 고려불상이라는 예술적, 종교적 존재를 넘어 그가 아니었다면 후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서산의 이름 없는 서민들의 삶의 편린과 그들과 대마도의 유일한 관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사적 가치가 큰 귀중한 문화재인 것이다.

저자는 김경임 前튀니지 대사 (현재 중원대 초빙교수). 1978년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외교관으로 도쿄, 뉴욕, 파리(유네스코), 뉴델리, 브뤼셀 등지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다.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당시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에는 드문 문화재 전문 외교관이다.

이번에 펴낸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은 이전의 저작 <클레오파트라 의 비늘><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와 더불어 약탈문화재 3부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외교관 출신으로서 문화재, 특히 약탈 문화재에 천착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군요.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파리의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참사관을 역임하며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국제적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의 역사는 빼앗고 빼앗기는 역사입니다. 원주인의 손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 환수운동의 기본입장입니다.”

금동 관세음불상은 약탈 문화재 환수사례 중에서도 특이점이 있습니다. 즉 외교와 협상이 아니라 절도라는 극단적 방법이기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한-일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주시하는 현안입니다. 일본에서는 인터폴에 수사의뢰를 하며 ‘한국이 훔쳐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생떼를 쓴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은 듣지 못할지언정... ‘약탈’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분노를 넘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선에 교역을 하러 건너간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벌어지는 불교탄압의 와중에 불상의 몰수나 파괴의 참상을 보다 못해 불타는 절에서 불상을 구출해 낸 것을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실례가 아닌가? 불상이 대마도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존 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마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오랫동안 지켜 온 불상을 훔쳐가서 생떼를 쓰며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재인식했다. 도둑질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과 다를 바 없다.”

-대마도 간논지(觀音寺) 前주지 다나가 세쓰코가, 대전지법의 불상 이전 금지 가처분 판결을 본 후 《산케이신문》 과 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마도 현지의 반응은 과잉이고 감정적입니다. 이 불상은 약탈당했다는 정황증거가 많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 절도단에 의한 대마도 불상절도사건이 한일 양국의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도난 문화재인 만큼 즉각 반환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반환을 검토하는 모양새였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압수된 불상 중 적어도 관세음보살좌상만큼은 반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이 불상은 왜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운동만으로는 안되고, 저작(著作)을 통한 자료와 사료의 제시가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출판기념회 전경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 불상을  
친견했을 때의 아름다움과  
탄생 후 675년간의  
기구한 여정에  
눈물이 났어요.

**약탈당했다는 정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조선에는 ‘폐불훼석(廢佛毀釋)’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조선이 송유역불 정책을 펴면서 불상을 부숴버렸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져가서 잘 보관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권력은 물론이요, 사가에서도 불상을 훼손한 일은 없었습니다. 둘째, 일본과 불상의 기증이나 교류는 없었다. 셋째, 불상을 사고파는 교역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의 세부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고려 말 왜구의 서산 침공 기록. 부장물, 불상이 입은 화상으로 보아 전쟁 중 약탈이라는 것. 일본 관음사의 위치가 서산에서 불상을 약탈해간 왜구의 일족의 거주지와 일치한다는 점 등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나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 주존불로 봉안했다는 발원문이 불상에서 나왔다는 점, 왜구들이 서산을 침략했다는 기록이 남은 <고려사>, 서산을 침략한 왜구의 정체와 그 일족의 근거지를 보아 이는 약탈해 간 문화재가 틀림없습니다. 장물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발상은 우리 역사에 눈을 감는 비정한 처사입니다.”

**제목에 ‘눈물’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누구의 눈물입니까?**

“서산의 백성 32명이 염원을 모아 바친 이 불상의 눈물입니다. 결가부좌하여 앉은키 50.5cm 이 관음 불상은 화상으로 그을린 두 뺨과 녹아 버린 손가락 끝, 때가 낀 온 몸, 훼손된 가사 소맷자락에 더해 관음보살이 당연히

써야 할 보관(寶冠)은 벗겨졌고, 광배와 대좌 또한 망실된 채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 불상을 친견했을 때의 아름다움과 탄생 후 675년간의 기구한 여정에 눈물이 났어요.”

**수백 년 전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문화재가 절도범들에 의해 원소유국으로 되돌아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마도 불상 절도사건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희귀한 사건입니다. 국제적으로 원 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70년 성립된 ‘유네스코 불법문화재 반환협약’은 도난이나 불법에 의해 반입된 문화재는 반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만큼 부석사 불상이 단순한 도난 문화재라면 한국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상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석사 불상이 약탈문화재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불상은 이미 돌려줬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돌려주었습니까?**

“그게 저도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겨우 신라불상 10점(국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무려 5백~8백점의 신라불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라불상을 돌려준 것은 이로써 일본이 외교문제에서 우리에게 선의를 갖게 되거나 모종의 양보를 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한 모양입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고려불상도 돌려주지 않았나 의심스

러워서 문화재청에 수차례 의견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부석사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환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문화유산 국민신탁>(김종규 이사장), <동북아 역사위원회>등이 환수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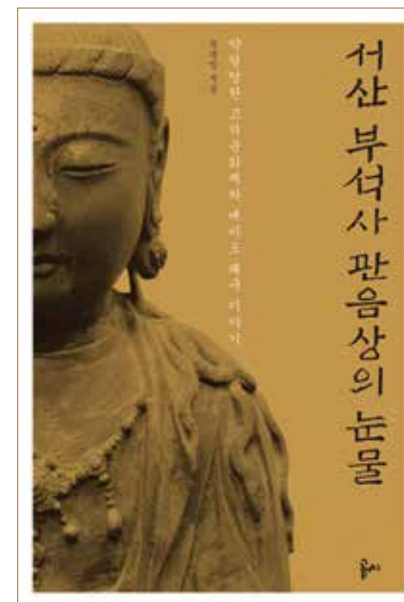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대마도 관음사는 어떤 절입니까? 그들의 말대로 이 불상을 잘 보관하고 있었나요? 도난범 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나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사찰의 유일한 불상이었습니다.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요. 유일한 불상이었는데 없어졌으니 현재 사찰은 폐쇄된 형편입니다. 이 불상은 지금 우리 문화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환수가 결정 되면 고대유물로서 국보가 될 것입니다. 도난범 들은 모두 재판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약탈 문화재 3부작을 쓰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외문화재를 그리 힘들게 되찾아 와서 뭐 하나, 외교문제도 있는데 그럴 거 있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져오지 말고, 그 나라에 박물관을 지어주자는 사람도 있어요. 뺏어간 사람들은 ‘왜 야단이야, 여기 두면 홍보도 되고 좋잖아’ ‘너희 나라에 두었으면 6.25때 다 망가졌을 거야’식으로 대응합니다. 이집트가 약탈당한 오벨리스크나 몽유도원도, 부석사 관음상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면, 앞으로도 약탈 문화재의 운명에 대한 관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前 TV저널 편집장 김현숙



**<책소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약탈당한 고려문화재와 대마도 왜구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는 <고려의 미소-서산 부석사 관음보살 돌아오다>. 제2부는 <대마도 이야기>.

1부는 도난사건으로 시작한 관음상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한 관음상의 출생의 기록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특히나 이 불상이 어떻게 대마도로 건너갔는지의 과정과 약탈의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는 방식이 탐정소설의 주인공이 단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흥미 있다.

2부는 대마도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서 이곳에 한국의 문화재가 어떻게 산재해있는지를 미시적으로 소개해 대마도를 관광지로 보던 시각을 문화재의 보고로써 바꿔 보는 경험을 선사한다. 저자의 <고교동창인 이두원 씨의 사진도 책의 권위를 높여준다. 저자의 '문화재 트릴로지(trilogy)'라 할 수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바늘>(2009, 홍익출판사), <사라진 몽유도 원도를 찾아서> (2013, 산처럼)도 일독을 권한다.

# 그곳에선 우리가 선녀였다

이희숙  
서울고대 명예교수/선농문화포럼 이사



울릉도 최고의 비경을 자랑하는 행남해안산책로

을유년…… 어느 날 밤 꿈에 바다 위, 산에 올랐는데 산은 모두 구슬과 옥이었고, 못 봉우리는 운동 첩첩이 쌓여 있었다. 흰 옥과 푸른 구슬이 반짝거리며 눈이 어지러워 바로 볼 수 없었고, 무지개구름이 그 위를 에워싸니 오색 빛깔은 꿈고도 선명하였다. 옥 샘물 몇 줄기가 벼랑 사이에서 쏟아지는데, 칼칼 하는 소리가 옥때 울리는 것 같았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나이는 스물 남짓하였고 얼굴은 모두 빼어나게 고왔다. 한 사람은 자주빛 노을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푸른 무지개 옷을 입었다. 손에는 모두 금빛 호로병을 들고 사뿐사뿐 걸어나와 내게 절을 하였다. 시냇물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니 신기한 화초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난새와 학과 공작과 비취새가 좌우로 날며 춤을 추고, 숲 끝에선 온갖 향기가 진동하였다.

위에 인용한 선경(仙境)은 허난설헌(1563~1589)이 꿈속에서 노닐었다는 선계의 풍광이다. 26세에 요절한 그녀가 가본 적도 없을 울릉도를 마치 눈앞에 보는 듯이 그려 놓았다. 우리는 이렇게 선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울릉도·독도에서 치유되어 돌아왔다.

울릉도의 지형도는 해발 986.7m의 성인봉(聖人峰)을 정점으로 흘러내린 5각형의 산괴다. 반짝이는 흰 옥과 푸른 구슬이 붉은 햇살과 어지러이 어울려 바닷물에 반사되면서 기습을 칠바닥거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새들이 춤추고 이름 모를 꽃들이 계곡을 수놓으며 온갖 향기를 뿜어내는 울릉도! 바다 멀리 속세와는 완전히 격리된 섬! 20여 년 전 성인봉 등반체험

이 울릉도를 '내 마음속의 山, 유토피아의 심상(心象)'으로 뿌리내리게 했다. 울릉도는 검제 정선이 한 떨기 피어오르는 연꽃봉우리처럼 그려낸 '금강내산'과 조응하며 애 터지게 속삭이고 있다. 그보다 더 절실하고 절박한 심사는 독도이리라.

내 마음속에 이상향의 축소(縮圖)로 간직되어 있는 울릉도를 찾아가는 여정은 가을이 한껏 무르녹은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 3박4일이었다. 선농문화포럼이 주관하는 '강릉-울릉도-독도, 제4기 스터디투어'였다. 우연히 여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조출한 힐링 테마여행이다.



천혜의 섬 울릉도에서 다함께

첫째 날 청량리역에서 8시에 모여 기차로 원주까지 한 시간 남짓. 원주에서 강릉항 쾌속열을 타기까지는 코레일 연계버스를 이용했다.

오대산 월정사에 들렀다. 일주문을 지나 좌우 자연에 전시된 설치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약 1km 전나무 숲길을 걸었다. 월정사 경내 성보박물관에 박물관 대학 민화연구반이 출품한 민화를 감상하고 텀로 조선왕실의례도장 찍기를 하면서 동심에 젖기도 했다.

월정사를 둘러본 후, 한 상 잘 차려진 산채정식 오찬을 즐기고, 안목커피거리로 이동해 운이 좋게도 '카페 보헤미안'에서 바리스타 1세대인 커피명인(名人) 박이추씨가 직접 내리는 커피를 음미할 수 있었다. 영진해변에 들러 바닷바람에 몸을 맡기고 모래사장을 달려보기도 했다.

1. 월정사에서 흥경자, 서기원 회원
2. 전나무 숲길에서 피톤치드 샤워중
3.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4. 핸드드립 커피의 명인 박이추 선생
5. 울긋불긋 가을 단풍 아래에서
6. 강릉 영진해변가에서



동해시에 우리나라 유일의 시내에 위치한 천곡천연동굴과 동굴박물관을 탐방했다. 천곡천연동굴은 4~5억 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수평동굴로 국내 최장의 천정 용식구로서 용이 용틀임을 하며 지난 흔적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장관을 보인다. 그밖에도 커튼형 중유석, 석회화단구, 중유폭포와 회귀석들이 어우러져 수억 년 전 태고의 신비를 엿볼 수 있다.

목호에서는 어촌이 예술 들레길로 변신한 논골담길 언덕을 유유자적 넘어가서 뱃길을 지키고 있는 목호등대에서 잠시 휴식. 조심조심 출렁다리를 건너 촛대바위 해안에서 회정식으로 정찬을 드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모두 소화해냈다. 어두운 밤바다를 끼고 다시 동해로 돌아들어 보양온천 호텔에서 첫날의 숨 기쁜 일정을 온천욕으로 풀어냈다.

**둘째 날** 이른 새벽 5시 기상. 강릉항으로 이동. 8시에 울릉도행 쾌속정 승선. 저동항에 도착하니 3시간 뱃길에 더러는 뱃멀미로 얼굴이 노래졌다. 그래도 3일간 단골식당의 점심밥은 푸짐하고 맛깔스러워 빠르게 생기가 회복됐다. 어쨌거나 잔뜩 기대에 부풀 울릉도 첫날 오후 일정도 어제 못 지않게 빠박하다.

\* 저동항 → 도동 → 사동 → 통구미 → 현포 → 천부 → 나리분지.

저동은 울릉군 개척당시에 일대 갯벌에 모시가 많이 자생했기 때문에 모시갯벌이라 부르다가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모시 저(苧)자를 써서 저동이라 했다고 한다. 울릉도 서북면의 관문항구인 현포(玄圃)는 코끼리바위와 노인봉, 송곳봉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동쪽 송곳봉의 그림자가 바다에 겹쳐 어린다 하여 현포라 불린다. 나리분지는 울릉도 유일의 평원으로 자연사/역사박물관처럼 옛정취와 너와지붕을 한 우데기집이 고즈넉이 보존 되어 있다. 성인봉 북쪽의 칼데라화구가 함몰되면서 형성된 화구원이다. 화구원 안에 있던 알봉(538m)이 분출하는 바람에 지금은 북동쪽 나리마을과 남서쪽 알봉마을로 두 개의 화구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 태하항목 : 관광모노레일을 타고 코끼리바위, 노인봉, 송곳봉, 산골마을 등 울릉도 비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었다.

\* 예림원 : 울릉도 특산의 나물, 꽃과 나무, 생명과 자연, 문자 조각 목각과 설치작품 등이 조경과 조화를 이룬 조각공원이다. 경관이 빼어나서 머리 위로는 노인봉이 굽어보고, 저 아래 탁 트인 바다전망 안으로는 코끼리바위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걸어오고 있다. 나는 향기에 취해 섬백리향 꼬마화분 셋을 스태프와 나누고, 조상님 위하듯 보살피고 있다.

**셋째 날** 마침내 대한민국 만세! 독도 가는 날. 제발 바람이 잔잔해 주길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저동항 활어직판장을 지나 촛대암 방과제길을 걸으며 오징어잡이배의 집어등이 수평선을 환하게 밝히며 장관을 이루는 것을 보고서야, 독도 집안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기로 했다.

<오전> 내수전 일출전망대 → 봉래폭포 관광지구

울릉둘레길 따라 올라간 내수전 일출전망대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에 떠있는 아담한 죽도와 관음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 봉래폭포 관광지구로 오르는 계곡은 가을빛에 흐드러지게 물들어 있었다. 삼나무 숲 삼림욕장(森林浴場)과 땅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의 찬 공기가 항상 4도를 유지하면서 바위틈으로 용출되는 풍혈(風穴), 그리고 울릉도 화강암인 조면암, 화산재가 압착 응고된 응회암, 잡석이 촘촘히 박힌 집괴암 등 3단 Y자 떨어지는 높이 25m의 봉래폭포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넋터로 사랑을 받는 울릉도 최고의 명승지로 꼽힌다.

<오후> 독도. 천연기념물 제336호.

두 개의 바위섬과 사이에 작은 바위로 이뤄진 우리나라 동쪽 끝 화산섬이다. 일본과 심각한 영토분쟁의 중심에 있는 독도는 『삼국사기』신라본기에서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을 복속시켰다고 기록돼 있듯이 512년부터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다. 멀리 독도가 시야에 들어오자 우리 모두의 가슴이 몽클하며 눈자위가 붉어지기 시작한다. 집안가능이 1년 365일 중 30일도 채 안된다니,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된 것이 분명하다. 경비병의 환영거수경례를 받으며 집안에 성공. 독도는 우리 땅! 감격적인 첫발을 밟았다.

<저녁나절> 미니버스로 한참을 이동, 약초만을 먹여 기른 한우, 약소정식을 먹고 만족스럽게 돌아오는 길에 모두 촛대바위에 들러 사진도 찍고 방과제길 산책을 하면서 울릉도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했다.

**넷째 날** 오후 3시! 울릉도를 떠나야 하는 날! 원래 일정은 자유여행으로 되어었지만, 우리는 남은 시간의 1분 1초라도 알뜰하게 보내기로 했다. 오전에 뱃길 15분 죽도관광을 하고 도동항으로 돌아와 뜨끈한 따개비 칼국수로 점심을 잘 먹었다. 아름다운 죽도의 총각주인이 죽도와 관광객을 돌보고 더덕농사를 힘들게 지며 외롭게 살아 왔다고 한다. 그러다 올 봄에 대구에 살던 도예가 새댁을 맞아 신혼살림을 차리고 KBS 인간극장에도 소개됐다. 낭만적인 꿈을 꾸던 외딴섬 청정지역을 돌며 우리는 깊이 힐링되었지만, 드넓은 섬을 가꿔야 하는 이들의 노고는 한이 없을 것 같다. 옛 이상향에는 힘든 노동이 없던데.

오후는 도동부두 좌해안을 따라 깎아지른 해안절벽길, 자연동굴,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 바다위로 놓인 테크길과 다리, 암반 아치등 비경을 감상하며 행남등대 전망대에 올라 우리가 걸어야 할 해안지질공원을 바라보고, 저동 해안산책로를 걸어서 호텔로 돌아왔다. 3시에 저동항을 떠나, 낙조를 보며 6시에 강릉항에 도착, 강릉 기와집에서 순대국 저녁을 먹고, 예정대로 서울에 도착했다. 알찬 내용과 일사 분란한 시간관리와 조직체계 속에서 몸은 곤했지만, 마음은 휴식과 회원들간의 따사로운 교감으로 한껏 즐거운 여행이었다. 벌써 제 5차 선농문화포럼 스터디투어를 기다리게 된다.



1.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2. 나리분지의 너와집을 보세요

3. 천곡천연동굴 탐방  
4. 태하항목 전망대 모노레일을 타고

5. 목호등대 앞에서  
6. 대한민국만세!  
7. 독도 입도를 기념하며

8. 울릉도 봉래폭포 앞에서  
이희숙, 김명자 이사  
9. 금강산도 식후경



죽도에 펼쳐진 초록빛 더덕밭

돌이켜보니, 막연하게 울릉도가 '내 마음속의 山, 유토피아'로 자리한 이 유가 분명해졌다. 손 타지 않은 땅 끝 바다 끝 낯설고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향나무, 바람, 미인, 물, 돌이 많은 5多의 섬, 뱀, 공해, 도둑이 없는 3無의 섬이기 때문만도 아닌 것 같다. 연중 섭씨 12.3도라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 때문만도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사람을 반기는 섬, 사람의 노고에 감사하는 섬. 수확량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섬. 그래서 그 섬엔 어디에서도 보기 못한 발풍경이 있다. 섬의 15%만이 경작지이고 그 대부분이 산비탈 산나물 밭인데, 수확한 나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레일이 초록밭을 이리저리 휘돌며 멋진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목숨, 보이는 자연과 보이지 않는 기운(氣韻)이 어울려 하나가 되어 푸르게 푸르게 생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음에 울릉도-독도를 찾아가면 그때 또 어떤 얼굴로 맞아줄까?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행남해안산책로에서



## 선농 제5기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예술의 섬, 나오시마’로 떠나는 앙코르 여행!



여행일정 : 4/24(일)~26(화) 2박3일

출발인원 : 선착순 30명

접수마감 : 3/10(목)까지

참가신청 : Tel. 02-2233-7871, sunforum@daum.net

선농문화포럼은 2014년 일본 문화탐방 이후 추가 요청이 쇄도한 '나오시마'로 다시 한 번 힐링 아트여행을 떠난다.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츠(香川県 高松) 수천 개의 섬 가운데 하나인 나오시마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구리 제련소가 있던 보잘 것 없는 섬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를 중심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쇠락하던 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래된 가옥을 고쳐 작품화한 이에(家)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추미술관(地中美術館), 이우환미술관, 베넷세하우스 등 나오시마 섬 전체가 현대 예술의 성지로 재탄생했으며, 현재 연간 30만 명의 여행객이 찾는 일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여행은 나오시마와 1차 여행에서 남겨둔 인근 테시마(豊島)섬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알레산드로 멘디니展

“좋은 디자인이란 시와 같고, 미소와 로맨스를 건네주는 것이다”  
-알레산드로 멘디니-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초대형 전시가 2월 2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지나친 소비 지상주의로 흐르던 모더니즘 디자인을 비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을 촉발시켰던 그의 과거 업적과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거장으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번 전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이다.

자칫 엄숙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기 쉬운 미술관 전시와 달리 '디자인으로 쓴 시'라는 부제의 <멘디니展>은 전공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관람객이 친근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이다. 12개의 섹션으로 나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전체가 금, 다이아몬드, 진주 등 보석으로 된 까르티에 보석탑과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대형 성당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유머와 변신, 협업, 색채 배합의 마술사로 불리는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대부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세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일정 2016년 2월 28일(일)까지  
장소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전시관  
자료제공 (주)아트센터 이다

**Anna G**  
Corkscrew in thermoplastic resin and chrome plated zam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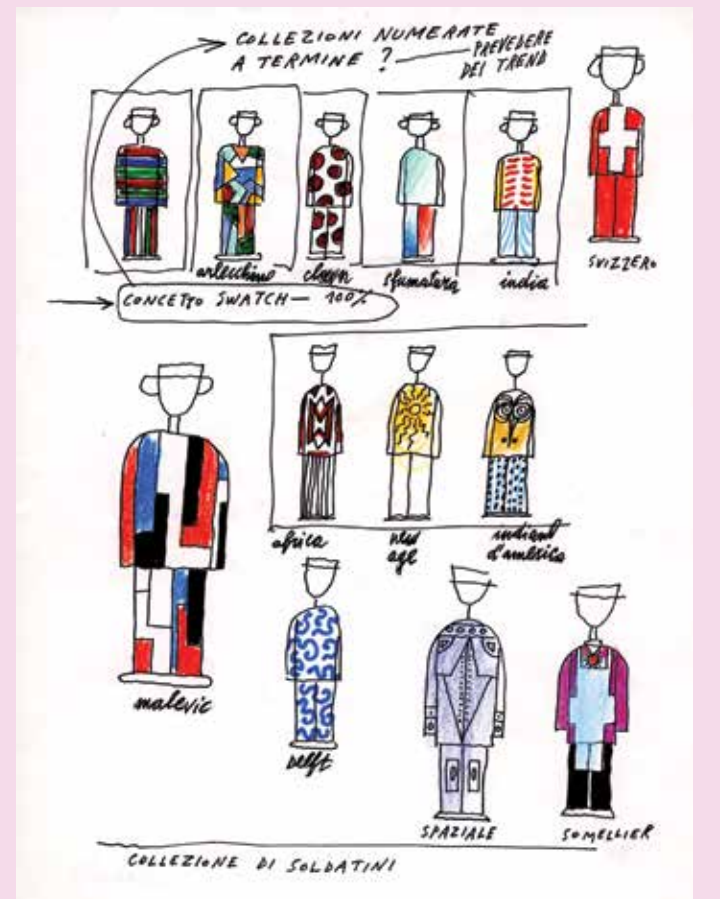


**Anna G**  
Corkscrew in thermoplastic resin and chrome plated zamak

**Poltrona di Proust -Geometrica**  
(영문: Proust armchair, Geometric)  
2009  
Armchair, painted wood and printed fabric  
100 x 100 x H100 cm



**Neo Malevic**  
2008  
Sculpture in fiberglass, hand painted  
40 x H70 cm



**Drawings**  
1974-2015  
21 x 29.7cm(A4)

# Cover Story



**朴重夏** Jukerman A. Bahk

1963년 서울생

서울사대부고 졸업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영문학과 졸업

NYU Tisch School에서 미술사와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전공(MFA, Ph.D)

중앙일보, 세계일보 출판국 취재기자

PC World, Macworld 한국판 편집장

With China 편집장

Getty Images 공인작가

LFI 공인작가

Lomography Lomo Amiogs 공인작가

2012 초대전(정갈러리)

2012 대한민국 화랑미술제

2013 현대자동차 모던 갤러리 초대전

2014 국제 인스타그램 초대작가

**컬렉션** MoMA NY, Getty Museum, Zygos Gallery, 선농문화포럼, 미래에셋

**사진집** China Diary 2003, China Town 2003, 희망콘서트(공저)



**따뜻하고, 유쾌하고, 젊은 디자인**

**선물, 홍보세트 디자인**  
GIFT, PROMOTION SET DESIGN

**브랜드, 캐릭터 아이덴티티 디자인**  
BRAND, CHARACTER IDENTITY DESIGN

**프린트디자인 / 패키지디자인**  
PRINT DESIGN / PACKAGE DESIGN

**콘서트기념MD 디자인**  
CONCERT GOODS DESIGN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ENTERTAINMENT DESIGN

**REHUGME.COM**

리허그미  
디자인랩  
REHUGME DESIGN LAB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콘서트MD 디자인, 선물/홍보세트 디자인, 프린트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CI&BI 디자인을 하고있습니다.  
그 외 브랜드디렉팅으로 사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구축해 드립니다.  
차가운 도심속에 리허그미의 따뜻함이 깃들길 바라며, 리허그미 디자인랩은 행복을 디자인 하겠습니다.

리허그미 디자인랩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12-3 BMC빌딩 4층 (4f, bmc b/d, 12-3, Gwanghui-dong 2-ga, Jung-gu, Seoul, Korea)  
TEL 070-7842-4621 E-MAIL rehugme@daum.net WEB http://www.rehugme.com

# 스페인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서 유럽을 만나다.

김효선  
여행작가



2008년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35일만에 완주한 김필규 이사

니다. 그리고 750여년 잊혀집니다. 세월이 흘러 813년 어느 날 수도사 팔라요는 별빛의 인도를 받아 리브레돈 들판의 빛과 음악이 흐르는 동굴로 이끌려가고 그곳에서 무덤을 발견합니다. 동굴에는 세구의 유해가 있었고 이 지역 주교는 야고보, 아타나시오, 테오도로 추정하고 로마 교황청으로 보고합니다. 로마 교황청의 검증 후, 야고보의 무덤으로 선언하며 당시 아스투리아 왕인 알폰소 2세가 야고보 무덤위에 교회와 수도원을 지어 봉헌을 합니다.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상황은 711년에 복상한 이슬람 세력이 장악했고 기독교왕국은 북쪽 끝으로 내몰려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때이며 레온 왕 가르시아가 국토회복운동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한편으로는 피레네 넘어 카톨릭 왕국들은 이베리아 반도가 전부가 이슬람에 정복되면 유럽본토로 들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던 때이죠. 야고보의 무덤 발견으로 기독교 왕국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시작합니다. 이베리아 반도 북쪽의 작은 왕국과 지역교회들은 성지순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기독교 이민자들을 불러들여 주민 수를 늘리고자 여러 혜택을 베풀고 또 기사단이 순례와 상업을 보호하니 경제는 더욱 번창했고 국토회복운동이 탄력을 받게 되었죠. 황량한 지역의 북아프리카 이슬람군소 왕국들이 마호메트의 성스런 손 유해로 단결되어 단 7년 만에 그 넓은 이베리아 반도의 북쪽까지 쳐들어 온 것처럼 야고보의 유해 발견은 기독교왕국과 교회들을 단결해 주었습니다. 야고보는 844년 클라비호 전투에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흰말 무어인들 살해하는 전사 전투의 선봉에 서며 이슬람과의 전투에 위기 때마다 나타나 무어인들을 살해하는 마타모로스가 됩니다. 이후부터 야고보는 국토회복운동의 승리를 약속해주는 국민적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12세기 산티아고 가는 길은 순례자들로 인해 유럽에서 최고 붐비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492년 그라나다에서 나르스왕조의 보압딜왕이 이사벨여왕에게 알람브라 궁전의 열쇠를 내주며 781년 지배가 끝납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18세기까지 순례자들이 있었고 19세기 산업혁명과 기술과 과학의 발달 20세기 초



매년 10억의 인구가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여행의 추세 중에 가장 핫한 트렌드 하나가 도보여행이죠. 여행의 Travel이 고생, 고역을 의미하는 Travia에서 유래되었다지만, 기꺼이 고생을 각오하고 걷기 위해 비싼 비행기를 타고 국내는 물론 해외로 갑니다. 이런 도보여행의 열풍,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보 여행자들은 풍성한 인문의 역사와 전설 다양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여행자들을 위해 편리한 시설들이 잘되어 있는 곳으로 가죠. 산티아고가 바로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에 전세계 도보 여행자들이 찾아갑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 Camino de Santiago 정식 이름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Camino de Santiago de Compostela 입니다. 스페인어죠. ‘Camino =길, Santiago=성인 야고보, Compostela= 무덤’,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의 대성당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분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멀고 먼 스페인 북부에 그의 무덤이 있게 된 것일까요? 성서에서 야고보는 갈릴리호수를 지나던 예수께서 그물을 낚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기원 44년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3장 사도행전 12장)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흩어져 복음전파 하는데, 이때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갔고 몇 년간 복음전파활동을 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후 야고보를 따르던 아타나시오 Atanasio와 테오도로 Teodoro는 야고보의 유해를 몰래

거둬 예루살렘에서 55km 떨어진 요파라는 항구로 옵니다. 야고보의 유해를 실은 배는 노도 돛도 없는 돌배로 오직 성령에 의지한 채 지중해를 가로질러 지브롤터를 지나 대서양의 물살을 헤치고 장장 5,000km 산티아고 근교인 패드론의 이리아 플라비아 Iria Flavia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이리아 플라비아의 산티아고 이글레시아 중앙제단에는 당시에 이 돌배를 묶었다는 기둥이 모셔져 있죠. 당시 이 패드론 지역은 이교도 여왕 루파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고보 유해 매장을 여러 차례 거부를 하다가 그 지역 산의 야생 황소 두 마리를 길들여 명예를 씩워 온다면 매장을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성령의 기적으로 야고보의 유해는 명예를 멘 황소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로 운구 되어 매장을 하죠. 루파여왕은 이 기적으로 개종함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스페인 길고 긴 내란과 순례를 괴롭히는 범죄 등으로 한 동안 순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오늘날 그 길이 다시 부활되었는데,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다녀가고 1987년 유럽의 문화유산 199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걸어서 가는 여행은 걷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여행이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여행입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그중 대표적인 프랑스 길은 스페인자치구 네 곳을 지납니다. 고대와 중세의 유적들을 지나고 북아프리카와 유럽본토에서 침략을 당한 세월만큼 많은 전설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마을들을 지납니다. 나바라, 라리오하 지역은 완만한 구릉들이 이어지는 더할 나위 없이 환상적인 길이 펼쳐지고 카스티야레온 지방의 길과 바람 많은 고원지대를 지나면 험한 갈리시아 준령을 넘는 고통의 길을 걷게 되지만 경외심을 불러 일을 길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대자연속에서 나를 깊이 돌아보며 침잠하는 시간은 그 값어치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또는 여럿이서 만나고 헤어지며 사람을 배우고 인생을 음미하는 귀한 시간들! 오로지 걷는 리듬감에 취해 단순해지는 삶을 만끽합니다. 길을 걷는 동안 물집의 고통과 무릎의 통증, 피로감 등으로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의 치유와 함께 잠재된 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분명 도전이 되지만 도전이상의 아름다운 성취감을 느끼는 곳이기도 망설임 없이 여러분을 산티아고로 가는 도보여행으로 초대합니다.

#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이해

이서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영유권 분쟁중인 남중국해

오늘날 동아시아는 국가간 해양분쟁과 해양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협 때문에 무력 충돌을 수반하는 해양위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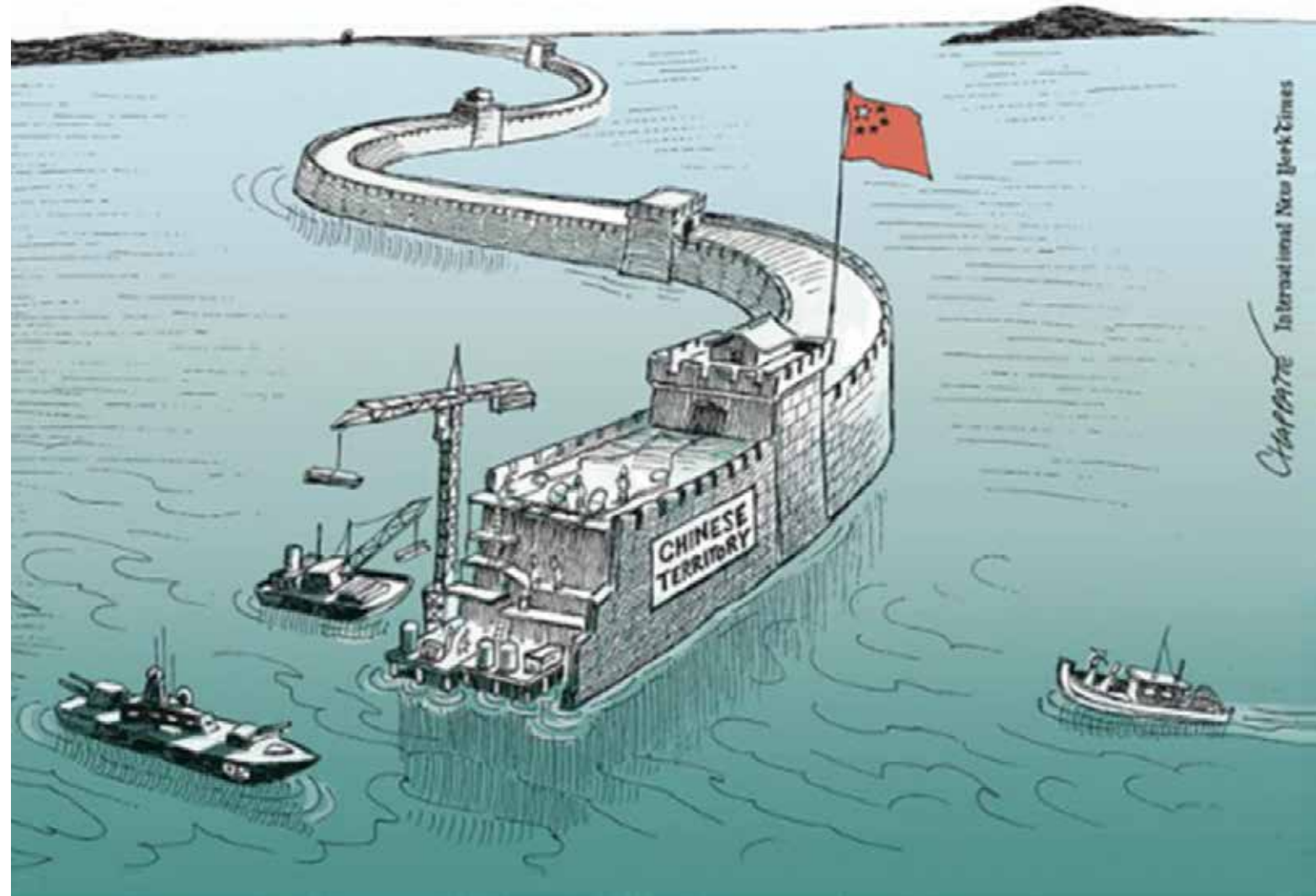
예를 들면, 중·일간의 다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열도(尖閣列島)를 둘러싼 동중국해 분쟁과 항행자유 의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남중국해 갈등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한다. 국제정치 사전에 따르면, 위기는 관련 행위자들이 서로 배척되거나 양립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할 때 발생하며 행위자간 관계에 있어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전환점을 제기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현재 동아시아 해양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양 의제에 대해 관련 당사국간 법률적 견해 또는 사실인식의 합의 결여'로 정의되는 해양분쟁이다. 이는 1920년대에 이미 現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전신인 상설국제재판소(PCIJ)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해양분쟁은 1950년대 초기부터 야기되었으며, 1990년대 말기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 이 지역의 해양분쟁 제기 건은 무려 1백여 사례에 이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

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대해 항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고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공도서 매립은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항행의 자유 논쟁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해양분쟁은 그 배경으로 대체로 5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이들은 (1)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연안국 해양관할권(특히 EEZ와 대륙붕) 확대 (2) 해양자원 중요성 및 도서의 전략적 가치 증대 (3)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한계 및 비효율성 (4) 냉전 종식 후 국제갈등 조정 장치의 미비 (5) 민족주의 감정 및 정서의 부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요인들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로 발전될 수 있는 일련의 위험한 행동들이 이어져 해양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적행위·해양오염·불법조업 등도 지역안보를 해치는 위기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해양에서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 <뉴욕타임즈 삽화 인용>

그렇다면 해양분쟁의 평화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해양위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평화적 분쟁 해결방법은 당사자 직접협상·사실조사·조정·중재 및 사법적 수단 등이 동원될 수 있겠으나, 해양안보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우발적 사태의 방지 및 회피에 주 목적을 둔 '해양위기관리체계'(MCMSs)의 구축과 긴장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오해 및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 및 안보 강화에 목적을 둔 '해양신뢰구축조치'(MCBMs) 실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해양위기관리체계' 구축에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은 (1) 관련국 해군사령부 간 '핫라인' 또는 직접 통신체계 구축 (2) 해양안보 문제 논의 전략 대화 시행 (3) 충돌방지를 위한 표준 함정 운용 절차 규정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해양신뢰구축조치'로는 (1) 함정 상호 방문 (2) 해적·재난 구조 등 초국경적 의제에 대한 실제적 협력 (3) 공동 해상순시 및 정보공유 (4) 다자간 해군 회의 및 훈련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이러한 '해양위기관리체계' 및 '해양신뢰구축조치'에 대한 동시추구만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발생을 방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냉전적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국가들은 해양위기 관리와 신뢰구축에 관련된 다양한 조치·제도·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시행할 것이 요망된다. 일례로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약 채택을 위한 협상도 이 지역의 신뢰구축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간 상호 오해를 줄이고 해양위기 관리 및 신뢰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아래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호 행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일단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분쟁해결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Aging Gracefully with Music

정은주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Aging은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며 인간 발달의 한 과정이다. 우리가 지나온 많은 성장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듯이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 20.8%로 UN 기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노화를 받아드리고 대처하는 방법’ (‘How to embrace and cope with aging’)은 국민 다수에게 중요한 삶의 화두가 될 것이다.

최근 회자 되었던 ‘The science of aging well’에서는 외부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대사 반응, 증식 반응 등의 생명현상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신체적 소진이 일어나게 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응적 현상을 Aging 이라고 정의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은 Aging을 보다 의미 있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동, 영양, 관계, 활동 등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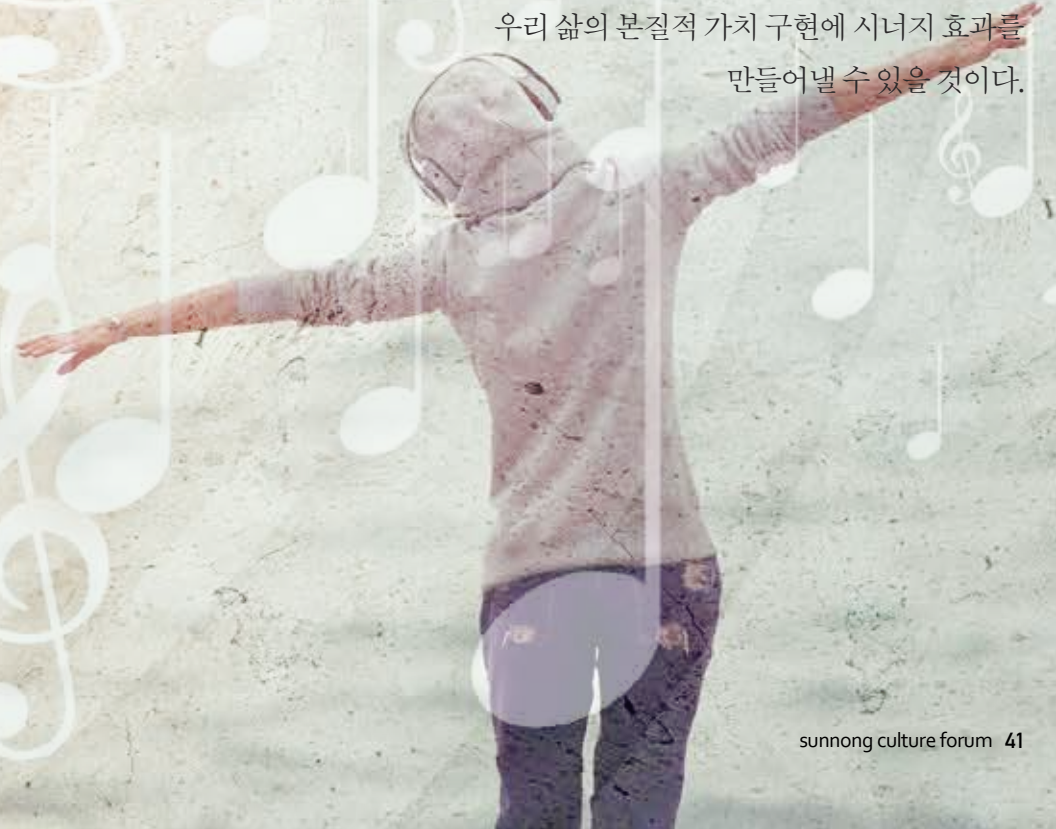
장자는 음악을 인사(人事), 자연사물의 이치(理致), 오행의 운행을 반영하는 대상이라고 했다. 인류학자인 Merriam은 음악은 우리에게 심미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과 소통의 도구, 사회문화적 결속력과 통합, 나아가 세대간 연속성 확립에 기여한다고 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MRI), 자기 뇌도 측정법(MEG) 등 첨단 영상의료장비를 사용해 음악의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music listening) 귀로 들어온 소리는 청각신경인 유모세포에서 신경신호로 변환되며, 다양한 청각기관을 거쳐서 대뇌 일차 청각피질(primary auditory cortex)에 도달한다. 특히 교감 및 부교감 행위 즉 자율신경계를 통합하는 시상하부를 지나면서 음악은 우리의 사고와 정서뿐만 아니라 혈압, 호흡, 순환계 등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는 등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music performance)은 보다 능동적, 자발적 참여 (active involvement)를 유도한다. 다양한 음악매체를 연주하는 동안 대뇌 기저와 피질 수준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며 다감각 자극에 대한 지각 능력, 감각운동 통합 기능, 운동계획 및 실행 기능 등이 향상된다. 이런 효과는 오랜 시간 동안 악기를 다루 온 음악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음악가의 뇌는 전문적인 음악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의 뇌보다 뇌량(corpus callosum), 전전두엽 (prefrontal cortex), 감각 및 운동 피질 (sensory motor cortex) 등 구조적, 기능적 우월성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주의력, 정보처리 속도, 소음 상황 대화 이해도 등 인지 및 의사소통 행동에 있어서 음악가의 뇌는 일반인의 뇌보다 후기 성인기의 기능이 지속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인기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체변화의 하나인 청력 손실에 있어서도 음악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는 자신이 훈련 받은 전공 악기의 특성에 따라 특성화되며, 7세 이전에 음악 훈련을 시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수록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음악의 장·단기적 효과는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인지기능 장애인 치매 (Dementia)와 운동실조를 대표 증상으로 보이는 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 환자에게서 치료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파킨슨병은 흑질(substantia nigra)의 도파민 생성 저하로 인해 보행, 언어 등 다양한 운동 기능에서 떨림, 느림, 자발성 실조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파킨슨씨병 환자에게 음악은 운동 속도에 대한 외부 참조점 (external reference)를 제공함으로써 운동의 시작과 적절한 속도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치매 환자의 경우, 진행 시기에 따라 사용하는 음악의 종류나 치료 목적이 확연히 구분된다. 치매 초기의 경우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친숙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음악을 사용해 잔존하는 자아 및 현실 인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음악은 우리의 다양한 행동 기능을 복원하고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과 함께 축적된 지혜를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게 한다. 나의 음악, 나아가 우리의 음악을 통해 빛어지는 화음은 사회적 관계와 참여를 촉진하는 ‘Aging gracefully’의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래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등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물과 사물, 존재와 사물의 초연결 사회 (highly connected society)가 예상된다. 다양한 음악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테크놀로지와 융합돼 실제 우리 삶에 first-hand technology로 적용된다면, 우리 삶의 본질적 가치 구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기쁨과 절망, 돈의 인문학

김진혁  
미래성공전략연구소장



## “돈은 모든 것의 축소판이다” -스피노자-

돈은 우리 몸의 피부와 같다. 단 하루도 돈과 무관하게 살 수 없다. 돈 때문에 웃고 즐기며, 돈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한다. 돈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입만 열면 돈. 돈 하면서도 돈 이야기 하면 품위 없어 보인다. 심지어는 가진 돈의 크기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황금만능주의 사회를 경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산다. 그래서 더 행복해졌을까? 이상하게도 행복지수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나라 사람들보다 더 낮다. 돈과 행복의 함수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다.'라고 부러워하지만 현실은 동 떨어져 있다.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에 굴종 당하고 돈의 사기극에 인생 저당 잡혀 자존심과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돈은 최고의 권력이 되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구별되고, 사는 동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입고 있는 차림새로 평가 받는다. 직업도 그 사람의 적성이나 만족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수준으로 평가되며, 결혼의 조건도 사람 됨됨이보다 경제력이 우선이 되었다. 한 마디로 돈에 관한 철학이 부족한 '천박한 사회'가 되었다.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인기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과다 약물 사용으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할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섹스 심벌 마릴린 먼로도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이기고 부의 성공과 인기를 얻었지만 고독감으로 자살해 버렸다.

돈이란 사생활 권리를 넘어 공동의 선과 성찰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통찰과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조명해야 한다.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변치 않는 사상으로 돈의 의미를 찾아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

벼락부자가 된 마윈(중국 알리바바 그룹 회장)은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했다.

“100만 달러(약 11억 2000만 원) 정도 갖고 있으면 운 좋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 돈이 1000만 달러(약 112억 원)에 도달하면 많은 책임과 부담이 따른다.

1988년 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지방대학에서 영어선생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12달러(약 1만 3440원)를 벌던 때가 내겐 최고의 시절이었다.

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와 빈곤은 상대적이다. 돈의 양에 의하기 보다는 내면에서 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질이 결정된다. 요구 수준이 높고 수입이 적으면 불행하지만 요구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입 상태가 높으면 행복하다.

“당신에게 갑자기 1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의미 있는 일이 떠오르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부자가 아니다. 지금 바로 돈의 인문학을 공부해야 할 분명한 이유이다.

## 돈! 도대체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원래 물질의 측정과 매개수단일 뿐 좋거나 나쁜 존재의 대상이 아닌 가치의 중립이다. 돈이 세상의 지배자가 된 것은 교환의 가치를 넘어 돈이 목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유대계 독일인으로서 철학자인 짐멜은 “수단이 목적을 상응한 가장 완벽한 예를 돈”이라고 규정한다. 돈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비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사고들이 돈과 연관되었다. 대운하, 방산비리, 국고횡령 등도 돈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간의 영혼이 돈으로 바뀌고 생과 사를 결정하는 권력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가?

돈에 속고 돈에 울지 않기 위해 머리의 통찰력과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지적한 “돈을 잘 쓰면 좋은 머슴이 되지만 잘못 쓰면 나쁜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실천에 옮겨보자. 오늘 이 하루도 당연히 감사하고 즐겁지 않을까?

## 돈을 비누처럼 사용한다면!

물에 잘 녹지 않은 비누는 비누가 아니다. 돈도 더러워지고 피곤해진 마음을 씻어주고 남을 위해 소멸되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돈을 노예와 같이 부려야지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된다면 엄청 괴로울 것이다. 현대인의 불행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의 출발에서 비롯 된다. 돈이 물신이 되어, 돈의 의미와 규칙을 배우지 못한 채 소유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종이로 인쇄된 돈이 자신의 위상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돈은 사용하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뿐이다. 좋아하지도 필요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 돈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돈을 잘 쓰면 좋은 머슴이 되지만 잘못 쓰면 나쁜 주인이 된다.’ 라는 것을 실천에 옮겨보자. 오늘 이 하루도 당연히 감사하고 즐겁지 않을까?



# 어깨 통증이라는 거인과의 싸움

**이상훈**  
정형외과 전문의  
CM총무병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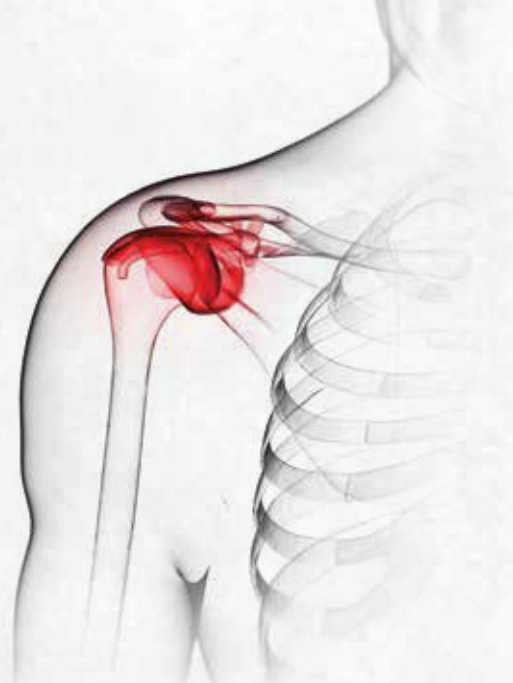
## 오십견의 진실

'오십견'이라는 단어는 일반인이 어깨 진단으로 사용하는 가장 흔한 용어이다. 그런데 실제 '오십견'이라는 의미는 '50세의 어깨'라는 의미일 뿐이다. 중국에도 이와 같은 용어가 존재한다. 과거 의학이 미개하던 시절에 50세정도 되어보니 어깨가 아픈 사람이 많아 오십견... 즉, '50세가 되면 아파지는 어깨병'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오십견' 안에는 30여가지의 질병이 존재한다. 어깨를 아프게 만드는 수십가지의 진단 중, 스포츠 손상과 외상에 의한 손상이 아닌 모든 어깨 관련 질환은 다 오십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치료법도 그만큼 다양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오십견'이라는 용어는 국내 의사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고, 그 치료법도 몇 가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어깨에 관한 학문이 1972년에 시작되었고 그 역사가 불과 40여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학문이 널리 보급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 오십견의 30여가지 질환 중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병은 2~3가지에 불과하다. 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병들 중 가장 흔한 병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번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오십견' 중 '회전근개 파열'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대다수의 어깨 질환은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적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 회전근개 파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 근육을 통합해 '회전근개'라고 부른다. 이들 4개의 근육은 어깨를 움직이게도 하고 어깨에 안정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고, 몸의 다른 근육들과는 달리 퇴행성 변화에 의해 파열되는 근육이다. 여러 문헌에 의거할 때, 60세 이상에서는 인구의 40%가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 중 실제 수술적 치료로 가장 흔히 연결되는 질환이 바로 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그러나 파열이 되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병원에서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무분별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필자가 근무했던 미국의 병원에서도 미국의 사들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무분별한 수술을 문제 삼았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직 어깨라는 학문의 역사가 40여년에 불과하다 보니 그 의학적 지식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라 생각한다.

## 회전근개 파열은 언제 수술하는가

4개의 근육이 모두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개의 근육이라도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는 수술이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가끔 4개의 근육 중 2개의 근육이 완전 파열된 것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되는 환자들도 있다. 우연히 발견된다는 의미는 환자는 어깨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본인이 아프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수술하게 되면 오히려 수술전보다 기능이 저하되고 통증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MRI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기능이 완벽하고 통증이 없는 환자에게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완전파열이 아닌 부분파열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부분파열의 경우 '파열'이 통증의 원인임이 뚜렷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최소 3~6개월 이상 시행해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대부분의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지게 되는 만큼 처음부터 수술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방법

끊어진 근육을 다시 원래 자리에 연결시켜주는 수술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관절경적 수술이 표준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관절경이란 것은 칼을 이용해서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 3~5개만을 피부에 뚫고 이 구멍으로 도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러 의리기구의 발달로 관절경으로 끊어진 회전근개를 다시 원래 위치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무래도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월등히 적고, 회복이 비약적으로 빨라졌다는 장점이 있다. CM병원의 경우는 수술 후 통증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깨 수술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수술 후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대학병원들과의 차별점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상훈 박사의 관절경 수술장면

## 회전근개의 말뚝꾸러기 '견갑하근'

2000년대에 관절경 수술방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의사들이 관절경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 결과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과거 개방적 수술에 비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견갑하근'에 대한 수술이었다.

견갑하근은 회전근개의 4개의 근육 중 가장 앞쪽에 있는 근육이다. 관절경 시대로 접어들면서 견갑하근이 파열되었을 때 이를 연결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견갑하근은 관절경 수술의 말뚝꾸러기로 취급 받았다. 그러나 2013년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된 이상훈 박사의 '견갑하근에 대한 표준수술방법'이 제시되면서 수술은 비약적으로 쉬워졌고 결과도 상승하였다.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수술시간을 단축했을 뿐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받아, 2013년 미국 정형외과 학회 니어 어워드 임상부분과 2013년 세계 견주관절학회 최우수학술상의 최종후보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상훈박사가 미국정형외과 학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

## 맺음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은 최근 4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이제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수술법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수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판단하는 의사가 '무한대'의 지식이 있어야 하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모두 수술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독자들 입장에서 다양한 의사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소수의 '무한대의 지식'을 가진 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당부하고 싶다.

## 공연 전시 안내

Arts & Culture

### 연극 나무 위의 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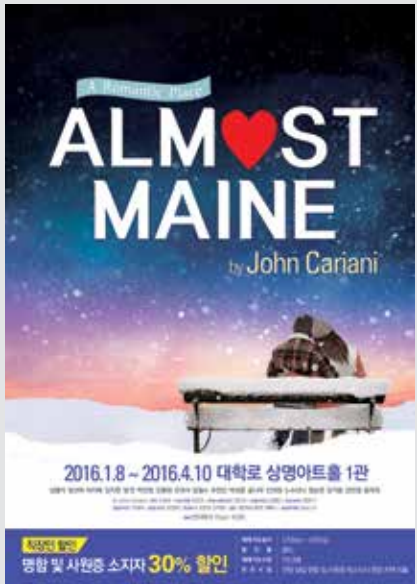


세계 각국에서 공연된 화제작들과 창작 작품을 엄선해 국내 초연 무대를 선보일 '연극열전6'의 첫 번째 작품 연극 <나무 위의 군대(木の上の軍隊)>가 국내 초연된다. 연극 <나무 위의 군대>는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전쟁의 모순과 삶에 대한 통찰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작품이다.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칭해지는 故 '이노우에 히사시'가 미처 완성시키지 못한 희곡을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작가 겸 연출가로 꼽히는 '호라이 류타'가 완성시켰으며, 2013년 쿠리아마 타미야 연출, 후지와라 타츠야 출연으로 올려진 일본 초연은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큰 호평을 얻었다. 연극 <나무 위의 군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에서 적군의 공격을 피해 거대한 나무 위로 올라가 2년 동안 그곳에서 지낸 두 군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다. 국가의 명령으로 섬에 파견된 베테랑 군인(이하 '분대장')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섬을 지키기 위해 군에 지원한 청년(이하 '신병')이 전쟁 중, 나무 위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대립과 이해를 통해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임을 말하며, 그 모순의 전쟁에서 진정 인간이 지켜가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전쟁을 통한 삶의 성찰이라는 작품의 메시지는 극한의 상황임에도 위트 넘치는

두 사람의 상황과 인간미 넘치는 대화 그리고 무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나무의 강렬한 무대 미장센으로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며 관객들을 몰입시킨다.

2015년 12월 19일(토) ~ 2016년 2월 28일(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시간 : 화~금 8시 / 주말 3시, 6시30분  
티켓 : 지정석 5만원, 2.3층 자유석 3만5천원  
문의 : 연극열전 02-766-6007

### 연극 Almost Ma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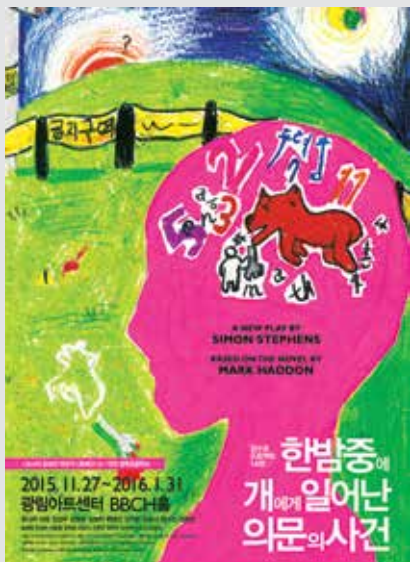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자, 솔직하고 담백한 사랑 이야기로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던 연극 <Almost Maine(올모스트 메인)>이 개막을 앞두고 있다. 연극 <Almost Maine(올모스트 메인)>은 지난 2013년 겨울,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이하 '간다') 10주년 퍼레이드 개막작으로 선보였던 바 있으며, 20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극단 소속 배우들을 비롯해 게스트 배우들이 가세해 총 34명이 출연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연 당시 연일 매진 행렬뿐만 아니라 4주간의 연장 공연을 진행하는 등 평단과 관객들의 극찬 속에서 성공적으로 공연되며 대

학로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오로라 열풍'을 이끌어냈다. 연극 <Almost Maine(올모스트 메인)>은 오로라가 보이는 가상의 마을에서 한겨울 금요일 밤 9시, 아홉 커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랑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Almost(올모스트)'는 Maine(메인) 주 북쪽 오지에 있는 상상 속의 조그만 마을을 의미한다. 이 'Almost(올모스트)'에 사는 사람들은 솔직하고 진실하며, 냉소적이지 않고 현명하다. 단지 보통 사람들이 고민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고민할 뿐! 연극 <Almost Maine(올모스트 메인)>은 언제나 진심만을 이야기하는 'Almost(올모스트)' 마을주민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인 '사랑'을 만나, 아홉 빛깔의 사랑 이야기를 순수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선보일 예정이다.

2016년 1월 8일(금) ~ 4월 10일(일)  
대학로 상명아트홀 1관  
시간 : 화,수,목 8시 / 금 5시, 8시 / 토 3시, 6시  
일, 공휴일 2시, 5시  
티켓 :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 Story P 02-744-4331

### 연극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013년 올리비에어워드와 2015년 토니어워드 연극 부문 최다 수상작에 빛나는 연극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이하 '한밤개')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연극 <한밤개>(연출 김태형)는 공연 프로듀서로 승승장구 중인 배우 김수로의 14번째 프로젝트 작품으로 예측할 수 없는 무대 연출과 화려한 영상미로 영국과 미국에서 큰 호평을 받았으며, 지난 6월 토니어워드 5관왕을 휩쓸며 최다 수상작의 영예에 오른 바 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 '크리스토퍼'가 이웃집 개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닫힌 세계를 벗어나 옹감하게 세상 밖으로 발을 디디며 벌어지는 소년의 성장담을 다룬 작품이다. 또한,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순수한 15세 소년 '크리스토퍼' 역에 윤나무, 전성우, 려욱 지극 정성으로 아들을 돌보지만, 아내와 불화를 겪고 있는 크리스토퍼의 아버지 '에드' 역에 김영호, 심형탁, 크리스토퍼를 가장 잘 이해하는 특수학교 선생님이자 극중 해설자 '시오반' 역에 배해선, 김지현,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행동에 지쳐가는 크리스토퍼의 어머니 '주디' 역에 김로사, 양소민을 캐스팅하여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16년 1월 31일(일) / 광림아트센터 BBCH홀  
시간 : 화~금 8시 / 주말, 공휴일 2시, 6시 30분  
티켓 : VIP석 8만8천 원, R석 7만7천 원, S석 6만6천 원, S석 4만4천 원  
문의 : 아시아브릿지컨텐츠 02-548-0597

### 연극 렛미인

연극 <렛미인 (원제: Let The Right One In)>은 스웨덴에서 최초로 개봉(2008)하고,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2010)되어 전 세계에 매니아 관객들을 양산하며 사랑 받아 온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연극은 스코틀랜드 국립극단(National Theatre of Scotland)이 제작하고 토니상, 올리비에상을 수상한 존 티파니가 연출을 맡아 2013년 스코틀랜드 Dundee Rep Theatre에서 초연되었다. 연극 <렛미인>에 쏟아진 찬사는 대단했다. '절묘하게 아름답다 (더 가디언)' '존 티파니의



훌륭한 프로덕션, 천재적인 예술성을 가진 작품이며 깊은 감정이 느껴진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눈을 뺨 수가 없다 (왓츠 온 스테이지)' 등 극찬을 받은 이 작품은 영국 런던 Royal Court Theatre와 Apollo Theatre에서 공연된 후, 2014년 South Bank Sky Arts Award를 수상하였고, 2015년 미국 뉴욕 St. Ann's Warehouse 공연으로 이어졌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10대 소년 오스카, 그와 친구가 되는 수 백 년을 산 뱀파이어 소녀 일라이, 그리고 일라이 옆에서 한평생 헌신한 하칸. 외로운 두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풋풋하지만 아련하며 더할 수 없이 매력적이고, 이제 늙어버린 한 남자의 소녀를 향한 사랑은 쓸쓸하고 잔혹하다. 연극 <렛미인>은 지금 시대에 만연한 학교폭력에 외로운 아이들, 그리고 늙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인간의 쓸쓸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잔혹 동화이다.

2016년 1월 21일(목) ~ 2월 28일(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시간 : 화~금 8시 / 토 3시, 7시 30분 / 일 2시, 6시 30분  
티켓 : OP석 7만 7천원, S석 5만 5천원, A석 3만 3천원  
문의 : 신시컴퍼니 02-577-1987

###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

새로운 창작뮤지컬의 탄생! 기대되는 창작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가 1월 29일 동송아트센터 동송홀에서 시작된다.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



는 2015년 창작뮤지컬 우수작품지원 사업(이하 창작산실)에 선정된 작품이다. 5개의 창작산실 우수 지원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된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는 지난 2015년 5월 시범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는 우수공연지원사업의 단계에서 2016년 1월 동송아트센터 동송홀에서 첫 공연을 앞둔 상태다. 공연계에서 주목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에서는 5년 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시크릿가든'처럼 영혼체인지라는 판타지한 소재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다수의 영혼체인지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녀가 영혼이 바뀌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노처녀 여가수와 가솔 여고생라는 '여자'들의 영혼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작품보다 더욱 섬세한 연기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사랑 역의 구옥분과 강하리 역의 최보영 배우는 다수의 연극, 뮤지컬 공연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온 검증받은 배우들이다. 영혼이 바뀌기 전과 후를 두 사람의 연기를 통해 알아보는 재미가 있다.

2016년 1월 29일(금) ~ 2월 14일(일)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시간 : 화,목,금 8시 / 수 4시, 8시 / 토 3시, 7시 / 일 4시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 MJ플래닛 02-2278-5741



**선농소식**  
Sunnong news

선농문화포럼 2016.01

**선농문화포럼 제11차 이사회 개최**



지난 12월 28일 세종호텔 베르디에서 사단법인 선농문화포럼 2015년 하반기 이사회가 열렸다. 바쁜 연말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사회에는 성기학 이사장과 이인호, 김필규, 변주선, 김윤중, 김명자, 김종량, 유재흥, 이희숙, 유창중, 조환복, 이옥식 이사, 김종규 감사 등 13명의 이사진이 참석해 올해 이사회 중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이사회 임원들은 사무국 임해진부장으로부터 2015년 운영보고를 받고 201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5년간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해준 회원들과 임원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회의를 마치고 이어진 석찬에서 참석자들이 '비.행.기.'로 건배 제의 운을 띄자 한양학원 김종량 이사장은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건배사를 했다. 참석자들은 김 이사장의 뜻깊은 건배사에 박수로 화답했다.

**선농문화포럼 총회 개최**



지난 9월21일 대학로 TOM극장에서 21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농문화포럼 총회와 가을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총회는 △이사장 인사말 △결의사항 보고 △축하공연 △만찬 등의 순서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선 정관변경, 임원선임, 예산 결산승인, 사대부고 교사 신축보조금 4억원 지급, 사업계획 등 안건이 의안으로 올라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어진 2부 순서에는 가을음악회와 연회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관련사진 10p~13p)

**선농문화포럼 이사진 명단**

No	구분	이름	직위
1	이사장	성기학	(주)영원무역 회장,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2	이사	이인호	KBS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3		김필규	前 K.P.K.통상 대표이사
4		음용기	前 현대종합상사 사장
5		이재현	(주)조양국제종합물류 대표이사
6		변주선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7		김윤중	(주)마성상사 대표이사
8		김명자	숙명여대 명예교수
9		김종량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10		김종훈	(주)한미글로벌 회장
11		유재흥	(주)가농바이오 대표이사
12	신임이사	노시청	(주)필룩스 대표이사 회장
13		이희숙	시인, 서울교대 명예교수
14		유창중	(주)영원무역홀딩스 감사
15		조환복	前멕시코 대사
16		이옥식	학교법인 봉덕학원 이사장
17	감사	김종규	김종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선농문화포럼 <제11기 인문·교양 강좌> 3월 3일 제11차 강의 개강**



**누적수강생 5,532명 돌파!**

제11기 <선농 인문·교양 강좌>는 손철주(학교재 주간) 미술평론가의 '옛 그림으로 본 선비의 됴됨이와 풍류'를 시작으로 3월부터 매주 목요일 17:30~19:30 사대부고 동창회관 3층 선농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p 공시사항 참조)

2015년 <인문·교양 강좌>는 서울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해 열린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년간 제110차 강의를 돌파한 <선농 인문·교양 강좌>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학구열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출판기념회 개최**



지난 11월13일 대학로 목금토갤러리에서 김경임(前튀니지 대사)씨의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성기학(영원무역 회장), 이인호(KBS 이사장), 김필규(前 KPK통상(주)회장), 변주선(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김윤중((주)마성상사 대표이사), 김종량(한양학원 이사장)등 각계 인사들과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부석사 관음상의 환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탈북청소년 심리치료 및 한국어, 영어 교육 지원**

선농문화포럼은 서울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여명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6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한국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부터 탈북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영어수업을 추가로 개설했다. 선농문화포럼은 2013년부터 지난 3년간 탈북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5기 <선농 심리학 화요강좌> 종강**

지난 10월 6일부터 6주간 진행된 제5기 <선농 심리학 강좌>는 수강생 전원 100% 출석률을 보이며 종강했다.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깨닫고, 실제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강의 평가가 잇따른 심리학 강좌는 다음 학기에 더 많은 회차가 개설되길 희망한다는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 성기학 이사장. 에티오피아 대통령 접견

성기학 이사장(주)영원무역 회장,섭산연 회장은 지난 12월4일 에티오피아 대통령궁에서 몰라투 테소메 위르투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섬유산업협력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했던 위르투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한국섬유산업리더들을 초청해 이루어졌다. 성회장은 이번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면화 생산국인 케냐, 우간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 이인호 이사. KBS 이사장 연임



지난해 여성 최초로 KBS 이사장에 선출된 이인호 이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해 9월 KBS 이사장으로 재 선출됐다. 이인호 이사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서양사 박사학위를 받은 원로 역사학자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핀란드와 러시아 주재대사를 역임했다.

### 김종량 이사. 자랑스러운 연세인 수상



김종량 이사(한양학원 이사장)는 연세대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 선정돼 지난 1월12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년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 김종훈 이사. 따뜻한 동행 바자회 개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사장 김종훈(주)한미글로벌 회장)은 12월12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에서 '산타클로스 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영원무역, 한미글로벌, 드림디포 등 9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바자회는 장애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됐다.

### 변주선 이사. 서울대 총동창회 태국지회 창립총회 참석



변주선 이사는 지난 12월10일 태국을 방문해 태국지회의 서울대 총동창회 승격을 축하했다. 한편 변이사는 역사, 교육, 의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여성 리더들의 자전적 에세이를 모아 출간한 「도전, 열정 그리고 동행」(푸른사상사)에 필진으로 참여했다.

### 제 3기 <가야금 교실> 기초수강생 모집



※ 가야금 구입비 55만원 별도  
선농문화포럼에서는 제3기 가야금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유의 전통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분들의 수강 바랍니다. 수업은 주1회 진행되며, 수강료는 月5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02-2233-78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농문화포럼 '지식기부'로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

2015년 선농문화포럼 강좌를 통해 재능기부에 동참한 교·강사가 총 20명에 달했다. 선농문화포럼은 내실 있는 무료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이번 재능 기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 출연금 명세서 (2015년 1월 1일~2016년 1월 15일)

구분	No	기부자	금액	비고	구분	No	기부자	금액	비고
이사	1	김필규	5,000,000	이사회비	교수 및 강사	16	고영희	250,000	강사로 기부
	2	김윤중	5,000,000			17	심영숙	250,000	
	3	유창중	5,000,000			18	함기수	250,000	
	4	이희숙	3,000,000			19	김기영	250,000	
	5	이옥식	3,000,000			20	박중하	250,000	
	소계		<b>21,000,000</b>			소계		<b>7,596,000</b>	
교수 및 강사	1	김종량	669,200	강사로 기부	일반	1	이효정	5,000,000	2015년
	2	이수태	669,200				5,000,000	2016년	
	3	강창희	669,200			2	김재희	3,000,000	
	4	조환복	500,000			3	김경임	1,050,000	
	5	이인호	500,000			4	임혜진	1,000,000	
	6	최명상	500,000			5	김유화	500,000	
	7	원영신	500,000			6	김인수	100,000	
	8	임준식	334,600			7	신은경	100,000	
	9	연경흠	334,600			8	강성란	100,000	
	10	전가림	334,600			9	이일희	50,000	
	11	조진형	334,600			10	한순영	50,000	
	12	권오길	250,000			11	문재숙	50,000	
	13	안동현	250,000			12	서기원	50,000	
	14	유미림	250,000			13	여성분	50,000	
	15	정강현	250,000			14	총동산악해외원정팀	2,000,000	
소계		<b>19,100,000</b>	15	주식회사 씨알디	1,000,000				
소계		<b>47,696,000</b>	소계		<b>19,100,000</b>				

기부금 수입합계 47,696,000

신한은행 140-009-141698 선농문화포럼

### 창녕 성씨고택 문화탐방

지난 12월12일과 13일, 1박2일간 김필규이사과 회원들은 성기학이사장의 초대로 경남 창녕 成氏古宅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봄 날씨처럼 포근한 날씨 속에 회원들은 안동 하회마을을 관람하고 창녕으로 이동해 고즈넉한 한옥 온돌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고택에서 꼬리곰탕으로 아침식사를 마친 일행은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우포늪을 방문했다. 1억 4,000만년 전에 생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늪지인 우포늪에서 삼삼오오 흠어져 태고의 신비를 사진에 담았으며 산책을 마친 회원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귀경버스에 올랐다. 창녕고택은 화양산 정기를 받은 명당으로 강릉 선교장, 구례 운조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택으로 손꼽힌다.



50,000원 연회비 납부자 (2015년 1월 1일~2016년 1월 15일)

No	이름	No	이름	No	이름	No	이름	No	이름
1	4 김영순	42	16 김윤종	83	정기현	124	최정예	165	황기복
2	정영호	43	박찬용	84	정명애	125	24 김명옥	166	32 김정애
3	민배자	44	이영용	85	정인숙	126	박정은	167	33 김영례
4	정주영	45	장공자	86	정효수	127	심영숙	168	34 김동호
5	6 조진호	46	17 성기학	87	조대영	128	최형기	169	김미미
6	7 이인호	47	김명자	88	채희자	129	25 유재흥	170	36 성기동
7	주영숙	48	유창중	89	최석찬	130	김수련	171	김경란
8	8 김태련	49	강신호	90	홍완숙	131	김영석	172	김광근
9	이옥근	50	고정숙	91	황은연	132	김종애	173	김순영
10	최성한	51	김근실	92	18 김경임	133	서기원	174	김희순
11	9 강찬구	52	김영은	93	김근호	134	심상덕	175	문인숙
12	강정자	53	김영화	94	김성환	135	조현주	176	송옥숙
13	김병주	54	김유현	95	김용배	136	26 신용경	177	신승희
14	이명숙	55	김정규	96	김정옥	137	홍덕기	178	신호재
15	이민희	56	김종애	97	유재희	138	27 권혁란	179	안길자
16	허영옥	57	김혜령	98	이덕연	139	김명숙	180	여성분
17	10 이선호	58	문인옥	99	이명섭	140	김현숙	181	오병관
18	11 김필규	59	문정자	100	이영희	141	박진배	182	윤동훈
19	유춘미	60	박숙자	101	이재임	142	함기수	183	이승훈
20	연흥숙	61	박해우	102	19 구재옥	143	28 김혜숙	184	이오희
21	유성삼	62	송병길	103	박현숙	144	29 강정근	185	이유진
22	이민자	63	송영수	104	임재봉	145	안영실	186	이정윤
23	정영자	64	신진우	105	한월명	146	30 박귀희	187	인영기
24	조혜옥	65	염상열	106	20 김종량	147	신동미	188	정수민
25	12 김학임	66	유경열	107	김종규	148	장영석	189	최경희
26	최영배	67	유기동	108	강석완	149	태종순	190	최정희
27	13 이희숙	68	유진방	109	김영옥	150	31 강성란	191	무 명
28	신상만	69	이광식	110	박상연	151	박지환	2015 소계	9,550,000
29	정규현	70	이근수	111	이종오	152	서창영	192	11 이민자
30	최문자	71	이문연	112	이찬민	153	안성옥	193	이인숙
31	14 권혜자	72	이병림	113	임희규	154	오정수	194	이정란
32	엄숙자	73	이병석	114	21 김애수	155	윤영숙	195	12 김학임
33	정선자	74	이영숙	115	조성교	156	이광용	196	23 최정예
34	15 김경애	75	이옥자	116	22 김성철	157	이명영	197	31 임태호
35	송위섭	76	이일희	117	이종문	158	이성복	198	임혜진
36	연향흙	77	이중원	118	임현수	159	이정현	199	장길수
37	윤계섭	78	이호숙	119	임호순	160	임혜진	200	32 김정애
38	이두호	79	이화연	120	23 박삼근	161	정시현	201	34 김미미
39	이부자	80	이희림	121	김유화	162	정우순	202	박현숙
40	이태경	81	장경민	122	문재숙	163	한경준	203	정수민
41	조종만	82	장정수	123	윤성탁	164	한순영	2016 소계	600,000



노스페이스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점 051-940-1327



노스페이스 롯데몰 동부산점 051-901-2571

떠오르는  
**쇼핑 핫 플레이스!**

노스페이스 부산 신세계 아울렛점 & 롯데몰 동부산점

맞춤상담으로 꼭 필요한  
아웃도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SALE**  
**30~50%** 개별 구매시  
**추가 10%** 단체 구입시



**이효정 대표**  
서울사대부고 30회 총동창회 부회장



Based on the trust of 50 years,  
MASUNG will prepare for the next 50 years.

# MASUNG 50년,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합니다

MASUNG은 5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세계를 향해  
Global Business Partner로서  
새로운 50년을 준비합니다.

MASUNG, for 50 years  
based on mutual trust built up,  
has been making efforts to develop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Now, as a global business partner,  
We will prepare for the next 50 years.



(주)마성상사  
MASUNG & CO., LTD.

**Main Business** 의약품 원료, 부형제, 합성 중간체, 건강기능식품, Licensing In & Out, Consulting.

본 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23 (서초동 서중빌딩 401호) Tel : 02-533-0123

안성공장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직길 114-35 Tel : 031-653-1237

평택공장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림길 150 Tel : 031-653-1237

Website : [www.masung.co.kr](http://www.masung.co.kr) / E-mail : [masung@masung.co.kr](mailto:masung@masung.co.kr)

# 1949 종합병원 CM충무병원

## 정확한 진단 정직한 치료



2대 병원장 (우)  
이도영 이사장  
(서울의대 23회)  
3대 병원장 (좌)  
이상훈 원장  
(서울의대 53회)

### 이상훈 원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 박사학위 취득
-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 미국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견주관절, 스포츠의학 임상강사
- 대한민국 배구 국가대표 팀 닥터
-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수석 팀 닥터
-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수석 팀 닥터
- 자동차보험 분쟁 심의회 전문위원
- 2010-2016 세계인명사전 등재, 미국 보건분야, 인명사전 등재, 아시아 인명사전 등재
- 2013 미국 정형외과학회(AAOS) 최우수 학술상 Neer Award 후보
- 2013 세계견주관절학회(IICES, 일본 나고야) 최우수 학술상 후보

# 1949 종합병원 CM충무병원

- 영등포역
- 롯데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 타임스퀘어

영등포소방서

CM충무병원

### 진료과목

정형외과 (허리, 어깨, 무릎, 수부, 족부)  
재활의학과 / 마취의학과 / 내과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일반외과 / 산부인과 / 영상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건강검진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6길 13 CM충무병원

**TEL.02.2678.0001**



당신이 만난 수많은 낯선 것들

낮설고 두렵지만  
당신의 발은 이미 모험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탐험을 시작할 때  
노스페이스의 도전은 시작됩니다.

# 다시, 탐험속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